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겸 주간 박재우
편집인 겸 주간 고병권
인쇄인 송재봉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사용)961-4152, 4466 FAX)961-4183
학생기자실 (출석)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1996년 3월 18일(월) 제660호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등록금 고율 인상, 총궐기로 맞서

장기투쟁 위해 2차 등록은 수용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학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 4가지 공동요구안과 자금에 산서, 예산자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골자로 한 공문을 지난 15일(금) 대학당국에 발송함으로 등록금투쟁(등투)이 이번주내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당국의 답변서에 따라 향후 등투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단계적인 투쟁의 방안으로 대내적인 선전전으로 학내 분위기를 고양시킬 예정이었으나 각 단대 학생회 일정 차질로 한 주 연기됐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상훈(인문·사학4)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학생들의 총의를 모아내고자 1차등록 연기를 제안했던 총학생회는 등록을 매개로 한 투쟁은 한시적인 투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2차등록을 제안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오는 27일(화) 총궐기투쟁전까지 등투와 관련, 각 단대 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와 전체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개 단대별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 울

서울캠퍼스 등투도 전면적으로 가시화될 조짐속에 총학생회는 3월말에 투쟁을 집중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20일(수)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보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애국외대 투쟁 선포식'을 오후 3시에 노천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개강이후 아침이슬운동과 광장사업을 통한 등투 교양사업보고와 아울러 △등록금 투쟁과정 보고 △학원자주화투쟁 보고 △오는 29일(금)·30일(토) 양일간 진행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명수 기자

힘 다지기 지난 15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강원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로 출발하기 전 본교 대의원들은 사회과학관 305호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 확보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일꾼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한승주 기자

학사 제적자 전면구제

제적 1년 경과 후 가능

지난 93년 1학기부터 특례 재입학(시국 관련 제적자)과 2학기 일반 재입학(등록금 미납 제적자)의 형태로 실시돼 왔던 재입학제도가 올해부터는 일반 재입학의 범주를 확대시켜 성적제적자나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의 재입학을 허용했다.

자격과 조건은 △제적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허용한다 △재입학한 후 12학점 이상 신청, 8학점 취득 평점평균 2.00이상이어야 한다 △재입학과 동시에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이며 지난 15일(금)까지 희망신청을 받았다.

학적과 손천수 주임은 "성적불량자에 대한 재입학 허용은 5·31교육개혁안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사경고 4번, 학점제한 3번에 가해지던 학사제적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돼 제도 자체의 철폐요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외대발전학생위원회 위원장 박대영(법·법학 4)군은 "진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는 학사제적 제도를 철폐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학사제적보다는 유급제도를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덧붙였다.

박수범 기자

한총련 대의원대회 열려

정명기군 제4기 한총련 의장 당선

제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지난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원대에서 열렸다.

대의원을 비롯한 새내기 대표단, 참관인 등 4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제4기 한총련을 이끌어갈 새 의장이 선출됐다.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전국 9개 지역총학생회연합 산하 대의원 1574명 중 93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3.4%(870명), 반대 5.5%(51명), 기타 1.1%(10명)로 제4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정명기군은 의장 결의문에서 "역사의 의지는 민중의 의지임을 자각하고, 전대협 한총련 10년의 역사에 발맞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자"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지면안내

컴퓨터 도난, 대안은 없는가 ……3면
겨울방학에 일어난 도난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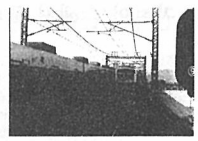
한국에 있어 미국의 존재는? ……4면
미국은 과연 참된 우방인가.

과방지기 ……6면
과 학생회의 노력으로 과방을 지키는 과방지기(?)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21C 한국 연극의 방향 모색 ……7면
한국 연극을 염려하는 6명의 연극인들이 열띤 토론의 장을 벌였다.

MBC노조 파업 ……8면
강성구 사장 연임에 따라 MBC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래도 열차는 달린다 ……9면



흔들리는 당산철교, 오늘내일, 오늘내일--

등록금 그 뿌리를 알자 ……10면
자! 실험실습비의 뿌리를 캡시다.

연재만화 ……12면
등록금 인상, 하숙비 인상으로 인한 하숙생들의 고충을 알아본다.

빈의자

골치 아픈 조국에 사는 법

▲ 일요일 오후, 늦잠 끝에 일어나 배 깔고 누워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있노라면 '즐거운 나의 집' 가사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내 집이 최고지…'

▲ 얼마전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뒤통수 얻어 맞고 있었을때, 또 다른 우리는 등 뼈이고 잘 집을 자키려다 철거 깡패에게 얻어 맞고 있었다.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헌법전을 가진 나라 대통령의 기만적인 복지 정책은 그들에게 하늘이 준 생존의 권리마저 잊어가고 있었다. 내가 뽑은 정부가 내가 낸 돈으로 내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지난 겨울부터 많은 민중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죽어갔다. 도시 빈민에게 영구 임대 주택조차 보장 못하는 잘못된 재개발 정책에 그들은 온몸으로 맞섰다. 내 집을 지키겠다고. 정부가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출 천억원을 노래부를 때, 그 노래가락의 코러스는 민중의 신음 소리였다.

▲ 우리는 잘 살고싶다. 누구나 안락한 집에서 오손도손 모여 든든히 밥먹고 즐겁게 일하며 살고 싶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누구는 기름 절절 끓는 방에서 느긋이 TV 볼 때, 누구는 한 겨울에 집 뺏기고 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리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살거냐고 물어, 내가 함께 잘 수 있도록 살겠다고 대답한다면 옆의 또 한사람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중얼거릴 것이다. "꿈꾸네"

그 사람의 냉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산다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는 정부를 향한 것이다.

▲ 현 정권의 가증스런 민중 생존권 탄압에 맞서 우린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 골치아픈 조국에 사는 젊은이로써 더욱 그렇다.

함께 잘 살기위해.

한승주

사령

임

대학부장
곽근영(인문·사학3)
김재경(법·법학3)

사회부장
박병수(인문·사학2)

문화부장
김상권(동학·아람4)
권동순(동양·이란4)

사진부장
한승주(정책·행정3)

이상 6명 3월 1일자

21세기를 향한 外大의 의지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1세기를 향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의지가 집약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최신 세계정보의 수집, 지역사정 연수, 실용외국어교육과 함께 특징지역 및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 등 전반에 걸친 분석과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업체, 정부부처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하는 「지역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세계정보제공
위성방송수신시스템, 유럽연합자료센터(EDC), 현지신문, 현지통신원, 인터넷등을 통해 수집한 세계 각지역의 최신정보를 전문연구진이 분석, D/B화하여 필요기관에 제공한다.

■ 지역학 연구
지역연구 및 학제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얻은 정치, 경제, 기술정보, 문화, 언어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학계에 제공한다.

■ 지역사정 및 외국어 연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해외파견 요원에 대한 장단기 실용외국어 및 지역사정연수를 실시하여, 세계화 시대에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지역학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韓国外国語大学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연·구·원·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가. 책임연구원 : ○명
1) 연구지역 - 동아시아, 북미,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포함), 중남미,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포함),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포함) - 【7개 지역】
2) 자 격 - •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해당지역의 언어에 능통하고 정보처리 능력을 갖비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연구논문 3편 이상인 자
• 해당지역 연구 전문가 2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연구원 : ○○명
1) 해당언어 -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체코어, 우크어, 중국어, 일본어, 바리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타이어, 이란어, 스와힐리어, 미얀마어, 몽골어, 히브리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 【29개 언어】
2) 자 격 :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해당언어의 말하기 및 읽기 능력을 갖춘 자
• 해당지역의 언어번역 능력 및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자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전공분야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나. 학력 및 상훈증명서 (대학, 대학원) ……각1부
다. 경력증명서 (중빙서류 첨부) ……각1부
라. 연구실적 목록 (학위논문 포함) ……각1부
3. 제출기간 : 1996. 3. 20(水) ~ 3. 22(金) 17: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분에 한함)
4. 제 출 처 : 본 대학교 연구협력처 (☎ 961-4040, 4387)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5. 전형방법 :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전형심사하고 결과는 개별통지함.
6. 기타사항 : 가. 외국어종합서는 반납을 원무 (본인 낭인)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연구협력처 (☎ 961-4040, 4387)

사 설

교수임용 비리 많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전 국민의 민주역량으로 이루어낸 5·18 특별법제정의 승리를 기억한다. 우리가 밟아야 할 고지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지만 한없이 역행할 것 같았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데 초석을 마련했던 5·18특별법 제정, 그 역사의 순간에 있어 많은 교수들의 서명은 역사의 물고를 트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교수는 이 사회에 있어 지성의 '총사령관' 계층이다. 이들은 '권위'를 상징하며 학문에 대한 높은 식견과 곧은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강의실안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실천과 결부하여서는 사회민주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오랜 '권위'가 낳은 정체성과 도덕에 대한 불감증으로 하나하나 침투되는 오물들을 걸러내지 못하여 자정능력이 약화된 채로 '고인물'처럼 점점 썩어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적신호'의 위험수위를 감지하고 정화하고자 하는 교수자신들의 움직임이 교수들 대학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결성된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이 교수임용에서 발생한 약 50여건의 비리를 확인하고 이 제보를 모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금품수수, 지연·학연등을 통한 인맥 등 교수임용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부끄러운 풍조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자칭하는 대학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외대에는 그런 사실이 없으리라 믿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피를 '수혈'받아 학문적·도덕적 혈관에 잠에가 생겨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대학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치유돼야 하는지.

이번 기회가 지하밑바닥에서 횡행하던 교수임용과정에서의 온갖 부조리와 탈·불법들이 다시는 자라나지 않도록 대학사회의 건전한 토양을 일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또한 대학당국은 연구업적분야의 심사를 좁더 엄정히 하여 지난 20년동안 실시된 교수임용기준을 수정·보완하는 등 자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총선을 앞두고 요즘 일반언론의 보도 형태는 최소한도의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땡김뉴스'라는 표제가 붙을 정도로 정권과 유착한 모습은 '국민의 눈과 귀'라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언론의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3일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선감연)가 발표한 방송 3사 모니터 자료를 살펴보면 언론의 편파보도가 어디까지 왔나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관련 노재헌씨 발언은 축소·은폐 보도로 일관한 반면 김대통령의 혜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기사는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사 모두 톱으로 다뤄 정권과 결탁한 언론의 일그러진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선거관련 보도는 KBS가 신한국당 1분 14초, 국민회의 44초, 민주당 30초, 자민련 23초 등 각당 인터뷰 시간에 차별을 보이고 배경화면도 신한국당은 축제분위기를, 국민회의는 뒷배경에 가라앉은 분위기를 묘사하여 공정성을 무시한 화면을 방영했다.

이에 반하여 총선정국을 앞두고 정권의방송 장악음모 구상을 비판하여 MBC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했다. 강성구 사장의 청와대 밀실 선임 철회와 '권력의 시녀로의 회귀' 반대를 외치고 나선 MBC노조는 권력에 길들여진 기성 언론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언론을 사람에 비유하면 온몸을 움직이는 동맥과 같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정치감각은, 동맥이 막히고 뒤틀리는 중증을 앓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똑바로 눈을 뜨고 언론을 보고 외쳐야 할 때다. 권력의 때묻은 손에서 벗어나 민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흡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먹구구식 학사행정 여전

4년째 외대에 다니며 매 학기마다 하는 수강신청과 학교 행정에 불만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본다. 외대생의 대부분은 부전공을 이수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신문방송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다.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하는 학년이니까 담연히 수강신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연속 2년째 터진 졸업생문제를 보고나니 '수강신청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밖에 없었다.

올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부전공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 강의시간표를 펼쳐 들었다. 4학년 부전공 과목에 뉴커뮤니케이션B와 매스컴연구방법론B 두 과목이 있어 그것을 신청했다. 3학년 1학기 때 부전공과목으로 수강했던 뉴커뮤니케이션 과목이 생각나긴 했지만 학교측에서 커리큘럼을 알아서 잘 짰겠지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고 나왔다. 그런데 우연한 만남과 선배가 그 과목을 들으면 중복수강이 된다고 했다. '내 졸업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생각에 아연실색하여 신방과 학과장실을 찾아가 상담했더니 조교의 답변 또한 나를 놀라게 했다.

조교의 말인즉 '지금 부전공으로 표기되지 않는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표기해야 되고 나중에 졸업사정을 할 때 부전공으로 학위를 인정 해준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부전공 이수자중에 하나인 나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1년이 지난 후에 자유선택을 부전공 학위로 인정하는 아량을 베푼다는 말인가!?

한 순간의 실수와 착오로 졸업 불가 대상에 오른 13명은 아마도 이런 주먹구구식 학사 행정의 희생양이 아닌가 싶다. 남들 하는대로 강의시간표에 나온대로 수강하면 졸업은 무사하겠지라는 생각이 일시에 깨져버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학교 학사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는지를 알게 됐다.

김인옥(사범·영교 4)

콩나물 시루같은 강의실

개강 첫날 전공수업을 들어간 나는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강의실에 사람이 꽉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 뿐만아니라 교수님도 당황하셨는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교무처에 강의실을 옮겨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단 그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교양수업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다. 우리 학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지금은 강의실이 바뀌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은 없지만 문제의 핵심은 강의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전 대교협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약 30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과가 듣는 수업을 보면 그 3배가 넘는 90명이나 100명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이것이 우리학교의 현실이다. 너무나도 열악한 외대의 교육환경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이러한 일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다른 대학과 비교하며 외대는 대학도 아니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학교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을 학교당국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무시해 버리는 것 같다.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선 학생들 수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강의실을 배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강행하는 학교당국의 안일한 행동에 항의를 보내고 즉각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길용(상경·경제 2)

깨끗한 게시판 만들기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교내의 게시판은 넘쳐나는 게시물로 몸살을 앓는다. 각종 대자보와 모임을 알리는 게시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음은 물론이고 땀바닥이나 건물의 벽, 심지어 나무 위에까지 붙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알려야 할 소식은 많고 게시판은 한정돼 있어 야기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첫번째로 한 곳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내 집 도배하듯 너무 많이 붙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낭비요, 타인의 알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고 한 곳에 한 장씩만 붙여 줬으면 좋겠다. 둘째로 게시물을 붙인 날짜와 뗄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몇 달이 가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붙인 게시물은 반드시 자기가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 주인처럼 붙여 놓고 타인처럼 방치해 둔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조그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모두가 지켜 나간다면 지금의 게시판으로도 알림의 기능을 십분 소화해 내리라 본다.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외대의 모습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일섭(사범·한교 3)

기숙사 선발 기준은?

모현에 자취하는 학생으로 지난 학기에 기숙사에 신청서를 냈으나 탈락되었다. 방학중에 빈 방이 있는지 전화를 거니 개강후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3월 4일날 운영과에 찾아가니 지금은 알 수 없다며 이틀 후에 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틀 후에 갔을 때는 그 전날 학생을 모두 선발했다며 가 보라는 것이었다. 군대에서의 속된 말로 줄 잘서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때서야 부랴부랴 힘들게 찾은 곳이 시설이 떨어지고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방이었다. 이런 경우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정방식과 그들의 무사태평주의로 아직도 학생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말 한 마디 믿고 찾아 온 학생에게 "방 없어, 기봐."라는 차가운 말 한 마디에 우리 외대는 대학평가에서 이미 뒤처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현 학사에서는 기숙사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추가 모집 또한 공고를 통합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 위에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호준(서학·서반아어 3)

등록금 오르기 전에 조기 졸업해야지

-소판 아이-

사랑을 할꺼야. 아무도 모르게

-허허실실-

화염병을 다시 들겠다 그들을 향해

-경대를 기억하는 90-

내가 선택한 자유의 틀속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인-

절대 학사경고는 맞지 않겠다

-확점제한-

백지 쉬자보

주제: 내가 새내기가 된다면…

재수하겠다

-팔수생-

달리면 숨이 차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로 난 다시 도전하겠다

-뛰고픈 아이-

농활을 꼭 가고 싶다

-OO-

장학금 타고, 연애하고, 동아리 들고…

-바쁜이-

책을 많이 많이 사겠다

-폐휴지 수집가-

명수당 (明水堂)

독도(獨島)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지난 3주동안 온 나라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나온 독도망언으로 떠들썩 했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단순한 영토분쟁의 차원을 넘어 한일 양국민의 응어리진 시연과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잘못된 일제 과거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필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왔는가? 다른 선진 해양국인 미국, 캐나다, 소련은 이미 신해양법에 관계없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물론 일본도 1977년 200해리의 어업수역을 선포했으나 한, 중, 일과 관련된 동해의 동경 135도 서쪽 수역과 큐수의 서남쪽 수역에는 그 선포를 보류해 한국과 중국에 조업을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태도를 바꿔 한국과 중국에서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한 첫째 이유는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한 데 있다. 한중일과 관련된 이수역에는 나름대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55년 한중 민간어업협정, 1975년 한중어업 협정 등 쌍무어업 협정으로 연안어업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중국의 어업기술 발달로 일본연안해에 어획이 너무 많아지면서 일본어민이 타격이 심해지자 일본어민 단체가 정부에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둘째는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문제, 중국과는 센카규 열도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자칫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200해리 선포를 자제해 왔다. 그런데 최근 극우성향의 하시모토 총리가 등장하면서 일본은 일본어민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200해리 구역 선포를 기화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대처방안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은 몇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은 공세적이라면 한국은 매우 수세적 자세다. 둘째 핵심인 경제수역 선포기선 설정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피해 갔다. 그 기선 획정을 실무협상에 맡기자고만 했다. 셋째 양국이 처한 국내 정치상황이 이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정권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넷째 양국은 독도 영유권문제와 경제수역문제는 별개이므로 분리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아마도 양국 정권당국은 양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냉각, 봉합시키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 2일 한일회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핵심적인 문제의 단서는 못찾았다. 상기의 양국의 입장을 종합해 보건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이상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일본 국제법학자나 해양 법학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수역선포 수위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보면 한일양국은 독도를 경제수역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울릉도와 일본 오끼섬을 기선점으로 삼아 그 중간선을 경제 획정선으로 하는 방안을 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무시해버리고 경제수역만 논하자는 논리로서 독도가 한국영유일수도 있고 일본 영유일수도 있다는 말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 하시모토의 이중적 영토전략을 잘 파악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이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오는 핵심 저의는 바로 경제수역 설정과 한일어업협정 개정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 기선점을 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리고 독도영유권문제와 경제수역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으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것은 강한 국제여론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과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의사관철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임해야 할것은 필요도 없다.

이 강 희
(본고 법대교수)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잘 나간다'는 말이 어울리는 젊은이들

금년도 자금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한 보고서로
팀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재무기획실의 창훈.

21세기 세계10大생보사 진입을 위한 13대추진전략수립 등
삼성생명의 비전을 설계하는 기획조사팀의 상철.

첨단 해외정보를 통한 국제투자로 거대한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업부의 세락.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영업관리를 인정받아
세계 생명보험의 메카 일본생명으로 연수파견될 영철.

삼성생명의 잘나가는 34기 동기 4인방이 영철의
출국환송을 위해 오랜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가 보험산업의 핵심이라
자부하면서도, '최고의 금융전문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최고를 향해가는 이들- 바로 삼성생명의 미래입니다.

국제사업부 박세락 기획조사팀 김상철 금융영업소장 최영현 재무기획실 곽창훈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심 층 보 도

경영계열, 시설·행·재정부문 하위

대교협평가결과

경영학과, 상위 40%밖
경영정보학과, 21위

97년 본교의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경영계열학과의 평가가 경영정보학과 21위, 경영학과는 40%안에도 못미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9일(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전국 94개대학 경영계열학과 평가 결과 본교 서울캠퍼스 경영학과는 상위 40%안에도 들지 못했고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는 21위로 우수계열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학부의 경우 학과를 개설한지 5년이상되는 전국 207개 학과, 대학원은 재학생이 있는 71개대 138개 학과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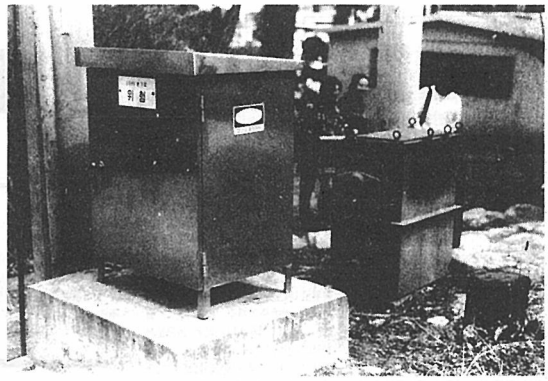
교육목표 및 과정, 학생(지도·활동·장학 및 복지·진로), 교수(임용·확보율·수업부담·연구실적), 그리고 시설·설비 및 행정, 재정 등 6개 영역 76개 항목에 걸쳐 3백점 만점으로 산출된 이번 학과평가는 짐수로 서열을 정해 상위 20%는 최우수 계열 학과로 그다음 20%는 우수계열 학과로 발표됐다.

이번 94개대 경영계열학과 평가에서 40% 다시 말해 40위 안에도 들지 못한 본교 서울캠퍼스 경영학과의 구성원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영학과 학과장인 강효석 교수는 "자체평가 보고서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라며 "주관적 평가항목의 하나인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영역에 대해 과연 10개의 서로 다른 평가팀 평가위원들이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하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라며 이번 평가의 평가위원간 신뢰의 문제와 시설평가에 있어서의 타당하지 못한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경영학과 학생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대자보작업과 열린총장실 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학과 학생회장 오승훈(3)군은 "대학당국은 교육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회 자체적으로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대학당국은 이번 결과로 인해 타대학보다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은 교육목표와 적합성, 수업규모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부문과 교육기자재 등 시설·설비, 행·재정부문을 시급히 개선하되, 동시에 이런 외형적인 면의 열세를 교수진의 계속적인 확충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오은진 기자



안전한 미네르바? 봄이 되면 옷을 갈아입는 외대인의 안식처 미네르바. 그러나 전압기와 많은 전선이 미네르바 인도 가까이에 어지러이 놓여있고 '위험' 표지판은 밟이 되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쓰여있다. 미네르바가 안전한 휴식공간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고영진기자

양캠퍼스 신임 부총장을 만나

"첨단 기자재 확충 추진"

서울캠퍼스 우덕룡
(서반아어과 교수)

지난 2월자로 보직 이동된 양캠퍼스 부총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학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물어 보았다.

- 소감과 포부는

= 일단은 과분한 업무가 주어진 것 같다. 하지만 역할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며, 총장을 보좌하고 교수 학생 직원 사이의 간격들을 메꿔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또 하나, 대학종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외대를 명문 사학으로 자리 매김시켰으면 한다.

- 외대 발전의 방향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 외대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듣곤 했다. 하지만 안병만 총장 취임 이후 외국학종합연구센터·통역대학원 건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도 어문학과 외국학의 메카로 나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청각 교육에 있어서는 기자재의 부족이 아쉬웠었다. 하지만 곧 재정 확충을 통해 첨단 기자재 교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학부제와 등록금인상 문제에 대한 학교측 입장은

= 현 학부제는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학부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이미 예상되어 왔으며, 이점들을 계속 보완하여 학부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동·서양어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 이동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외대인 모두 한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외대 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한다.

박수범 기자

"용인 전임교수제 도입돼야"

용인캠퍼스 박성래
(사학과 교수)

- 소감은

=부총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지 않아서 별반 느낌은 없다. 단지 대학당국에서 용인캠퍼스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 서울캠퍼스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편중되는데 대한 견해는

=서울캠퍼스에 편중된 학교운영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총장이 항시 집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총장이 관할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용인캠퍼스 특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 용인캠퍼스 특화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보다도 용인캠퍼스를 출강하는 교수들의 애정과 열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현행 순환교수제를 폐지하고 전임교수체제로 전화되어야 한다.

- 올해 등록금책정과정에서 학생측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부총장 발령이 방중에 있었기에 잘 모르겠다. 다만 등록금 책정은 총장과 학생측 대표간의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 학생들은 올해 등록금책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등록금은 신교육개혁안과 외대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책정된다고 생각한다

-외대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은

=현 외대실정으로 원론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진정한 외대발전은 구성원 모두가 학교를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본다

- 앞으로 부총장 임기중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 부총장으로 권한이 된다면 용인캠퍼스에도 교수연구실을 마련해서 출강 교수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미흡한 난방시설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과 학생회실마다 난로를 지급하고 싶다.

전명수 기자

허술한 보안… 잇따르는 도난
다양한 방안 마련시급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 부품 도난사고가 학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들의 보안책 마련의 요구가 일고 있다. 총무처에 집계된 도난사건은 용인캠퍼스 동·서양학대 교학과, 포르투갈어 학과장실,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메킨토시 컴퓨터 특강실, 법 대학생회실 등 여러 건으로 밝혀졌다.

그중 가장 최근의 사건은 지난 2월 15일(금) 사회과학관 상경대 전산실에 특강을 위해 들여놨던 매킨토시 10대중 7대와 법대 학생회실의 586컴퓨터가 같이 도난당해 시가 1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 청량리경찰서 형사과 강력2반 표종태 형사는 "다량의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보아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며 학교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며 "통신관매여부와 주변의 대리점 및 취급업소 등에 중고매매여부를 조사중이다"라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을 밝혔다. 또한 표형사는 "범인들은 사람이 드문 시간을 통해 미리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안에서 문열쇠를 부수고 봉고나 트럭과 같은 차량에 싣고 몰래 정문이 개방되는 오전 6시 이후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정황을 추측했다.

컴퓨터 가격의 70%이상을 차지하는 CPU, RAM, HDD 등의 도난사건이 비교적 안전시설이 미흡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 총무과장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경비는 완벽할 수 없으니 구성원 각자의 주의를 바란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학당국은 앞으로 도난사건 방지를 위해 △주요 잠비 및 시설이 비치된 사무실이나 연구실마다 4월중에 경보장치 설치 △일·숙직 근무자 교육 △도난방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술한 보안이 부른 도난, 창문에 쇠 창살 하나 달고 보안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 대학당국의 안일한 태도는 이젠 버려야 할 것이다.

오은진 기자

재수강신청, '혼란'
교과과정 개정 여파

올해 학부제 실시에 따라 1학년 교과과정이 완전 개편됨으로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일(월) 부터 12일(화)까지 양일간 실시된 수강신청 확인및 변경기간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양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더불어 현행 교양과목 학점이 대폭 하향 조정됨으로써 취득학점에 문제가 생겨 재수강 신청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안정우(동국·루마니어 3)군은 이와 관련 "1학년때 교양선택 영역인 철학개론은 3학점이었는데 올해부터 2학점으로 하향조정됐다"라며 "대학당국은 재수강신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무책임한 대학당국의 학사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교과목의 변경으로 사라진 과목에 대해서 동일계열내에서 유사 또는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지침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얻은 후 신청을 해야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부전공 과목을 재수강해야하는 최정현(서학·영어 4)군은 "기존의 4-5교시 시간표가 5-6교시로 변경됐다"라며 다른 강의시간표와 맞물려 불가피하게도 재수강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용인캠퍼스 교무과장 이진섭씨는 "이번 교과과정개편은 각 학과 교수들이 재학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결정됐다"라며 "학생들이 미리 공고를 양지하고 수강신청을 했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학생들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대학당국의 졸속한 학부제 강행과 개편된 교과과정으로 혼란스럽기만 한 수강신청, 내년에는 몇명이 졸업을 못하게 될지 우려된다.

전명수 기자

POSCO메세지 개강편

새로운 캠퍼스 1년-
자, 출발합시다!

역시 캠퍼스는 우리에게 포근한 고향과 같은 곳 -
교수님의 진지한 강의와 도서관에 가득찬 책냄새가,
선후배의 얼굴이 그리워 달려간다.

새로운 싹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발돋움하는
약진의 계절에 캠퍼스 1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새롭게 시작할 때 생기는 이 팽팽한 긴장감과
다부진 각오로 한 해의 종점까지 똑바로 뛰어가야지.

젊음의 엑기스 같은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대학생활은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큰 배움의 바다에서 온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하고 낭만을 노래할 것이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학 술 기 획

글 싣는 순서

1. 미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사①
2. 미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사②
3.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재정립
4. 북·미 평화 협정안
5.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한가?

성숙한 대미인식을 통한 미국 바로 알기

미국, 우리나라에서 항상 자국이익에 따라 행동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광주 학살 지원 규탄대회'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1980년 5월 소위 신군부의 특전사 광주 투입 비상 계획을 미리 알았을 뿐만 아니라 광주항쟁 무력 진압작전을 승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리라 믿는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온갖 성명과 논평을 통해서, 그리고 1989년 한국 국회에 보냈던 백서에서까지, 미국이 광주학살에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비도덕성이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감정적인 반미 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나간 역사 한 토막을 차분히 짚어 봄으로써 미국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들추어 내면 용공이적 행위로 매도당하기 알맞고 미국을 비판하면 반미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나는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들을 한국의 반미주의에 관하여 썼으니 약 10년에 걸친 미국 유학을 통해 반미주의만 공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교수와 학생들은 매우 재미있는 주제를 연구한다며 깊은 관심을 보인 반면, 한국 교수와 학생들은 그렇게 '과격한'주제에 관한 논문을 써도 귀국해서 취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왜곡과 편견이 자리잡고 있음을 재미있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1945년 분단과 함께 남한을 점령했던 미군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점령군'이라고 밝혔는데도 점령당했던 한국인들은 그들을 굳이 '해방군'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한미 관계사가 왜곡되기 시작하였고, 남한 땅에 미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보다는 남한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편견이 굳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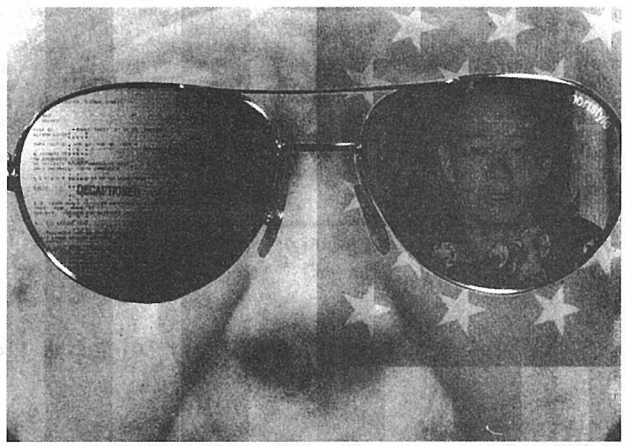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남한에 핵 배치

이 논단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 개입이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 전쟁에 관한 사실은 많이 밝혀졌으므로 지면 관계상 4월혁명과 5·16쿠데타를 전후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진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사건들은 1980년대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들을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1950년대 말에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한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얘기. 지금까지 미국은 과거 남한의 핵무기 배치에 대하여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지켜왔다. 물론 몇몇 국내의 학자들은 그동안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였다. 1958년에 작성된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라는 '구체적 물증'은 1957년 6월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 휴전협정의 군비확장 금지 조항을 폐기함에 따라 미국은 주한 미군의 현대화를 꾀하면서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에 핵포병 사단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북한의 병력변화에 따른 남한의 안보때문이 아니라 소련이 1957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균형에 변화가 생긴 데 따른 미국의 안보때문이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하게 되자 미국의 안보에 여유가 생김으로써 남한의 핵무기 철수를 결정했던 것이다.

UN군은 한반도에서 이익을 미국에 제공

둘째, 4·19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한국군 투입에 대한 미국의 승인에 관한 얘기. 1960년 4월19일 대학생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자 김정렬 국방부 장관과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이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군 제15사단의 병력 이동을 승인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매그루더 사령관은 승인하였다. 주한 유엔군의 책임이 "한반도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작전 기지를 유지하는 중대한 이익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새겨 보면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0년 5월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광주 항쟁 진압을 위한 한국군의 병력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아닌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반도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4·19에서 5·18, 12·12, 6·29선언까지 한국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에 개입한 것을 이제는 더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사진:시사저널

세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초래한 미국의 압력에 관한 얘기. 1960년 4월26일 이승만이 '조건부'하야 성명을 발표한 것이 미국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아 들인 것이었다는 주장들은 바로 잡혀야 한다. 그의 하야는 무엇보다도 매카노기 주한 미국대사의 끈질긴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이승만의 독재로 인하여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어서라기보다는 데모로 인한 사회혼란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게 되면 "근본적인 미국의 이익"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야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사령관 및 CIA한국 책임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4월2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은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만천하에 단호하게 부인하였다. 따라서 광주 학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국무부나 대사관 성명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도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고 발뺌해 온 것 역시 습관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네째, 5·16쿠데타 진압을 위한 한국군부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거부에 관한 얘기. 미국은 1960년 7·29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장면 정권의 출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장면 집권 37개월만에 군부에 의한 정권교체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4월 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이에 따라 자주적 통일운동 및 반미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장면에게 불만을 품게 된 미국은 한국의 정치 안정과 미국의 안보 이익을 확실하게 지켜 줄 강력한 군사정권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세력만 지원

그러나 미국이 장면 정부의 대안으로 계획했던 군사정부는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한 군사정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법적인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쿠데타를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즉, 5월16일 새벽 3시경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박정희의 쿠데타 시도를 보고하며 쿠데타 진압을 미군이 도와주도록 요청하였지만 매그루더는 거절하였다.

1979년 12.12쿠데타가 일어난 뒤 정부군측의 장성들이 전두환 일당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주한 미국 사령관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하였던 것도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최근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반미운동을 지켜보며 반미에 앞서 지미(知美)를 주장하고 싶다. 어떠한 사건이 돌출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미 운동을 벌이기 보다는 그럴수록 미국의 속성에 대해서 철저히 알자는 것이다. 미국을 바로 알게되면 감정적인 반미운동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친미 감정보다는 성숙한 대미 인식을 가지게 되리라 믿는다.

이 재 봉
〈원광대 정외과 교수〉

5·18 미국 개입 극비문서 지면화한 시사저널 변창섭 기자를 만나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하는 한국이 돼야죠"

미국의 4·19진압을 승인한 외교문서 발견(문화일보), 5·18관련 '체로키' 극비문서 공개(시사저널), 미국 중앙정보국이 만들어 낸 6·29선언(WINZI).

한국현대사의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특종이 올해 들어 계속 터지고 있다. 알마전까지만 해도 '5·18 광주민중항쟁에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용공 이적행위로 몰렸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세련화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시하며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할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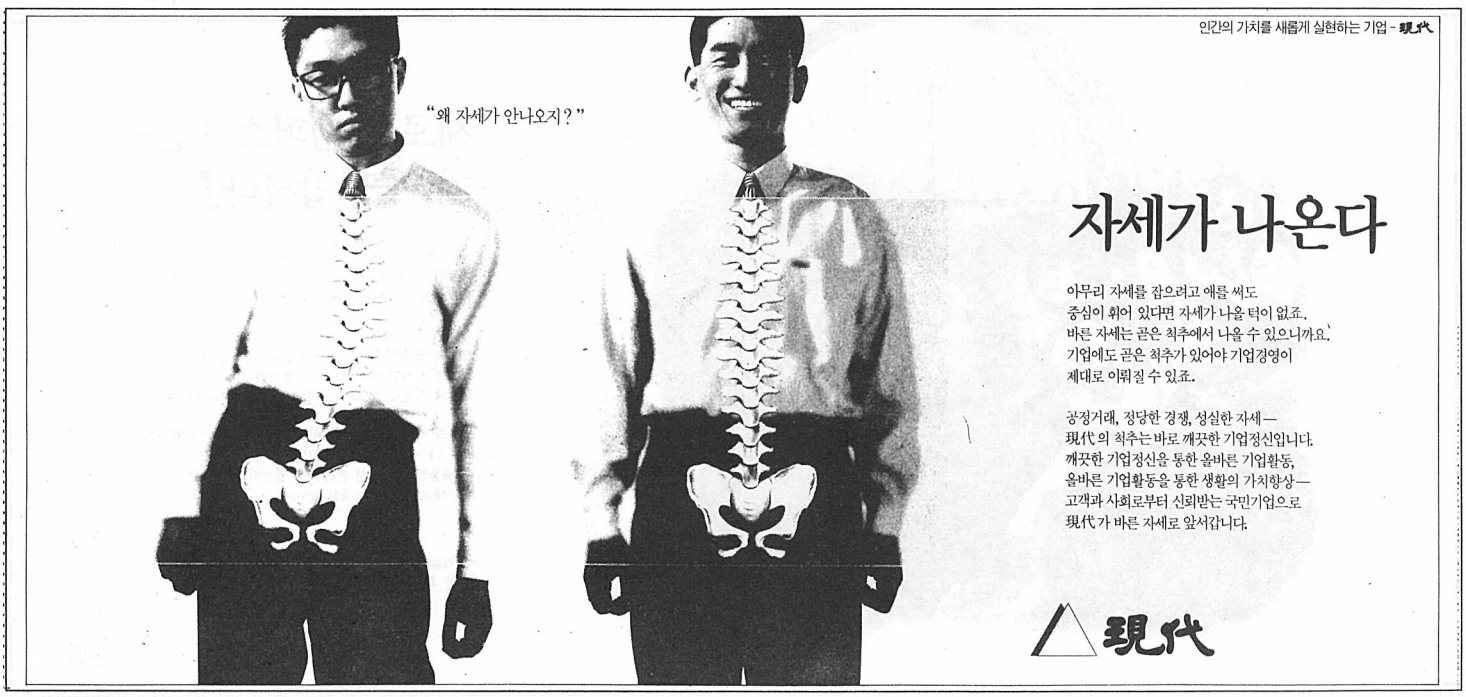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 바로보기'에 큰 몫을 담당한 기자가 여기에 있다. 그는 바로 얼마전 시사저널에 3회에 걸쳐 체로키 극비문서를 지면화한 국제부 변창섭 기자다. 변기자는 "이 문건에는 한국 현대사의 획을 가르는 전두환 시대의 개막과 그 과정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진귀한 내용물이 많다. 한 예로 엄청난 희생자를 낸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 미국은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 체로키 문건을 보면 미국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특전사의 이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런 문건들이 16년만에 공개돼 세간의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기적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바로 12·12와 5·18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가려져 왔던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평가받았다"며 체로키 극비문서가 현 시점에서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이를 지면화하는 데 그는 운이 좋았다고 한다. 당초 이 문건이 지면화된 것은 미국의 통상전문 유력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 워싱턴 특파원인 팀 샤록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였다. 그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5년간의 추적 끝에 문제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한국매체에 기고하고 싶어 했다. 우연히 필자를 아는 미국 취재원으로부터 소개받은 팀 샤록기자는 3회에 걸쳐 주요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그 때가 작년 12월 하순이었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최근 시사저널에 지면화된 것이다.

변창섭 기자는 최근 한미관계에 대해 동반자 관계라고 소개한다. "동반자라고 하면 우리측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요"라며 "이 동반자 정책은 무차별적인 대한 통상 압력으로,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미관계를 밝힌다.

그는 올바른 한미관계를 위해 "한국은 당당하게 제 몫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 국익에 어긋날 때는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라며 말을 마친다.

사회부



해/외/통/신

서방패권주의, 중동 테러의 근본 원인

중동 사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중동에서 다시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것 같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이다. 그리고 두 주역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도시 중심부에서는 자살 폭탄테러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그 대상도 더욱 무차별적이고 수법 또한 잔혹해졌다. 세계는 경악했고,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자살특공대를 모집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는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쇄재 없이 몰려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응징에 가슴 후련해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 날 중동에서의 평화협정은 이스라엘을 자국 이익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승리의 환호이지, 결코 아랍 대중 다수의 합의가 뒷받침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팔레스타인 과격파들이 지지르고 있는 테러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에 대한 표피적인 비난에만 익숙해 있을 뿐, 테러를 유발한 숨어 있는 '본질적인 테러'와 그 원천적인 배경에는 매우 무지하다.

팔레스타인 비극의 원인

팔레스타인 비극은 금세기 초 그곳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와해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개입과 분열책동을 통해 중동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들에게는 독립 △유대인들에게는 향토국가의 창설 △프랑스와는 팔레스타인의 자국통치라는 세 개의 상호 모순되는 비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중동분쟁의 근원적 불씨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800년 가까이 아랍인이 지배해왔던 팔레스타인의 심장부에 서방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아랍인을 잔혹한 방법으로 축출하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고토회복 투쟁이 시작되었고, 네 차례의 중동전쟁으로 이어졌다.

중동에서는 이제 평화무드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서방이 중동에 기울여 온 자국을 위한 온갖 노력이 승리한 것이다. 결코 아랍 대중의 합의가 뒷받침 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테러 사건에서 알 수 있다. 사진:코리아 헤럴드

유엔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강점하고 있는 아랍영토를 즉각 반환할 것을 결의했지만,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팔레스타인들의 원초적인 요구와 국제사회의 정의는 강자의 횡포로 무참히 좌절되었던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빼앗긴 팔레스타인들은 가진자의 엄청난 힘과 위장된 정의를 고발하기 위해 이제 자살테러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마스 창설의 배경

오랜 고난과 망명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 온건 세력을 대표하는 PLO는 이스라엘과 1993년 9월 드디어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땅과 평화의 교환'이란 명분 아래 서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였다. 그러나 하마스를 비롯한 강경 세력과 50년 가까운 난민생활에서 고향을 등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족과 친지를 빼앗긴 많은 팔레스타인 대중들은 이스라엘을 면죄하고 그들의 종복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자유와 보다 나은 원상회복을 외치며 저항했다. 힘의 열세에 밀린 그들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군과 정보당국의 공개적인 테러에 의해 차례로 목숨을 잃어 갔다. 1988년에는 이스라엘 점령치하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자치와 자유를 외치며 맨주먹의 '인티파다' 봉기를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 사격으로 피의 진압을 당해야 했다. 뿐만 나면 인권과 정의를 드높이던 강자들은 내내 침묵하였다.

힘과 무기가 있는 자만이 정의로운 현실에서 하마스도 창설됐다. 주로 이스라엘군을 향한 격렬한 무장저항을 시작했다. 이처럼 하마스의 테러는 필연적으로 예고되어 있었다.

테러의 최대 후원자, 패권주의

민간인을 향한 테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배후에는 약자의 마지막 외침까지 외면한 서구 자신의 책임이 엄연히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전에만 급급하는 서방의 패권주의와 한 공동체의 고유한 사상과 가치를 짓밟고 자신의 것만이 지고선이라 강변하는 독선이 바로 제3세계 테러의 최대 후원자인 셈이다.

아랍의 자원으로 성장한 가진 자들이 이제 빼앗긴 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억울한 음어리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최소한의 돌파구라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공존의 기틀 바로세우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저항에서 상대적인 비판과 절충의 단계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희 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책

현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법적 근거를 통해 반박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박원순 지음

사상누각(砂上樓閣).

우리의 역사는 이랬다. 해방이후 친일부역자에서 5월 광주에 총을 겨눈 사람까지도 우리는 면죄부를 주어 역사로 만들었다.

'과거 청산'이란 구정권과 그 시대하에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다.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정당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인권의 암흑기'로 대변되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우리는 구호로 명목상으로만 과거를 들추어냈지 결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만고의 진리를 안아오진 못했다. 현직 변호사가 저술한 이 책은 해방이후부터 5월 광주까지 청산하지 못한 우리역사를 꼬집으며 역사를 바로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해방직후 친일과 청산문제를 다룬 '모래위에 나라 세우기'편에서 저자는 민족정기라는 튼튼한 기초위에서만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등의 법적 대응으로서 친일의 역사를 지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혜방 후 친일부역자 처단의 실패' '4월혁명 후의 반민주행위자 처단의 실패' '5·18광주학살 책임자 처단의 실패'를 반민법 제정과정, 거창 양민학살 등 여러 정치적 사건을 통해 조명하고 역사속에서 실패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광주는 끝났는가'편에서는 전직 두대통령의 구속으로 마치 광주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떠드는 요즘 광주사태의 성격 재규정, 정부의 사과 등의 구체적 치유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불의한 자는 큰소리치고 정작 의로운 자는 숨어지내야 하는 슴막힌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서도 우리는 광주를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를 남긴채 '과거 청산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있는한 계속될수 밖에 없다'라는 저자의 말은 아직도 인권이 소리없이 꺾이고 있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재경 기자

우리 공간 찾기 위한 당당한 몸부림

이제 태동하고 있는 본교 생활도서관 앞에는 다른 대학 생활도서관이 겪었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타대학 생활도서관의 초창기 어려움을 들어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기도 한 생활도서관의 모습을 알아본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은 이미 7년이 된 안정된 곳이고 홍익대학교 생활 도서관은 3년된 아직은 시작인 단계이다. 두 생활도서관을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편집자

80년대는 가히 학생운동의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시대를 걱정하고 적극적 혹은 소극적이라도 소위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세계사적인 엄청난 전변위에 정권이 고도의 기술로 선전작업을 함에 따라 갖가지 사상과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대학에도 '신세대'들이 들어와서 옛날의 세미나 문화는 가버린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집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책이나 잡지, 텔레비전,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좁더 대중화된 문화가 필요했다.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생활도서관 건립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당연히 학교측에서는 생활도서관을 적렬히 반대하였다. 대학 내의 또 다른 운동문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조그맣게 운영되던 학회나 그 안에서 비밀스럽게 돌려보던 문건이나 서적들이 이제는 버젓이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전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도서관을 만들려는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반대에 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싸워야 했다.

"열흘 동안 쇠파이프에 의존하면서 라면으로 까니를 때웠어요. 한 사흘지나니까 먹기만 하면 다 토해냈어요"라며 홍익대학교 생활도서관 관장 전동휘(예술학과 94)씨는 작년 겨울을 회상하였다. 고대 생활도서관도 지금의 40평 남짓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하였다고 한다.

학교측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전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서관 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도서구입 등은 모두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난관을 거쳐 7년이 되어가는 고려대 생활도서관은 이제 학교측으로부터 관장과 부관장은 장학금을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대학 생활도서관의 운영위원들은 여전히 장학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잡은 고대 생도관에서 담배 피며 이야기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숙제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험난한 길의 성과가 이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고대 생도관이나 홍대 생도관에서는 각 과의 소모임이나 학회를 위한 여러 자료를 갖추고 있어 여랑이 부족한 모임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대는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 두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도관이 건전한 대학문화를 담보해준다면 이에 학생들도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학술단신

연세대 제 2대학 개최

지난해에 이어 '제2대학'이 연세대 '제2대학' 주최로 오는 25일(월)부터 5월 30일(목)까지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열린다.

세 개의 강좌로 구분되는데, 먼저 환경문제의 실태, 환경과의 현장, 핵문제 등을 다루는 '우리 공동의 미래 -환경문제의 인식과 실천' 강좌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동안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최경홍씨가 강의한다.

두 번째 강좌는 '해방 50년의 한국정치'로 박정희 시대부터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과 김영삼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해 본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며 강사는 서강대 정치학과 손호철 교수외 3명이다.

포스트 공산주의 시대의 맑스주의 등을 공부하는 '현대세계의 철학적 접근'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강사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성백 연구위원이다.

또한 각 강의 첫날에는 '총론 및 열린강좌를 위한 눈높이 맞추기' 강좌가 열린다.

등록기간:3월 11일부터 23일까지
문의:연세대 제 2대학(012-331-9929)

대학운영비리 공청회 개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추련)에서는 '대학운영비리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2일(금)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 YMCA 강당에서 개최한다.

재단비리와 임용비리 및 등록금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제안이 발제된다.

대학운영의 비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의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이 공청회의 목적이 있다.

총선투쟁연대, 대토론회 개최

보수·재벌정치 분쇄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학생 총선투쟁연대(총투련)가 오는 19일(화) 오후 4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노동자 민중후보와 함께 하는 96총선 대토론회'를 연다.

한국노동청년연대를 비롯해 김명희·김철수·김홍현·김종박 노동자 민중후보 등이 참가하며 총투련 대표인 박병언 서강대 총학생회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어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96·97년 정세와 남한 변혁운동을 토론할 것이며, 노동자 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공유하고 총선의 의의를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토론 기조를 밝혔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삼성

국경을 초월하여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는 삼성화재 스타지오 국제봉사단.
지난 1월29일 부터 2월14일까지 삼성화재 국제봉사단은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삼성화재는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돌아왔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여기에 짧게나마 기록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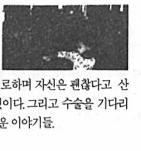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믿음이 만병통치약

모든 병에 효과 있다는 만병통치약.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만병통치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얀마에서 만병통치약을 발견했다.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의 일이다. 우리가 진료했던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소화제를 먹고 몇 년간의 근육마비가 풀렸다며 몇 번이고 감사를 표시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미약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소화제 처방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병이 나았던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믿음의 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와 인간애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이번에 깊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의료팀 이 상 협 (서울대 의대 4년)

태권도로 맺은 '산원' 과의 우정

"태권도, 코리아!"를 외치는 미얀마 호랑이 고아원의 아이들. 서투른 발음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져 옴을 느끼며 나의 봉사 활동은 시작 되었다.
봉사 4일째, 하루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단 옆차기를 가르치던 도중에 산원의 방목이 심하게 탈골되었다. 마음을 졸이며 서성거리던 수술대기실. 나는 이곳에서 이국땅의 아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산원은 계속 웃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며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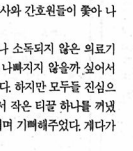


조금만 아파도 신경질을 부리던 나는 홀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내 자신을 반성 해 보았다. 단순히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의 따뜻한 마음과 그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곳 미얀마에서 작은 것을 주고 귀하고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간다.
예체능교육팀 백 승 휘 (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1년)

베풀러 갔다가 배우고 왔습니다.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사이공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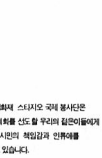
도시전체가 오토바이,자전거의 홍수 속에 슬렁대는 사이공. 이곳에서 나는 AIDS와 헌혈에 관한 캠페인을 현지 적십자사의 회원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때 만난 사람이 18세의 틴이라는 긴머리 소녀였다. 요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틴은 아리랑 노래의 가사를 들고 다니며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캠페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틴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뒤에 탄 나에 대한 배려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작지만 일상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 이번 자원봉사는 나에게 삶의 진로와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환경위생캠페인팀 유 재 도 (한양대 관광학과 4년)

이래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미얀마의 수도 양곤시에 있는 국립재활원. 마치 우리의 50년대 시골 학교 같은 낡은 건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부터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투른 솜씨탓에 내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의사와 간호원들이 몇아 나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더러운 손이나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구들에 멀쩡한 내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눈에서 작은 티끌 하나를 꺼냈을 때 모두들 박수를 치며 기뻐해주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비싸다는 안약 한 통을 쥐어 주셨을 땐 눈물이 핑 돌았다.
베풀러 간곳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온 나.
지금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과 사랑,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장애인지원팀 이 상 희 (연세대 경영학과 4년)

Heart to Heart
Sargeo Volunteers
삼성화재 스타지오 국제 봉사단은 세계화를 선도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시민의 책임감과 인류애를 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심을 생활에 큰 힘을
SAMSUNG
삼성화재

학생회의 근거지, 과방을 살려라

과사랑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죠

고영진기자

각 과마다 신입생들에게 새롭게 다가서고자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아랍어과가 좁은 과방을 벗어나 신입생들과 열린 장소에서 만나고자 연 '이동과방'의 한 장면이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학생회관과 노천이 신입생들을 맞이하려는 모습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입생들은 강의가 없을 때나 동기, 선배를 만나고 싶을 때 등 많은 시간을 과방에서 보낸다. 그런데 이렇게 과방이 붐비는 것도 그야말로 학년 초 뿐,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점점 과방에 찾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 오던 사람만 찾게 되는 소수 집단의 소유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

지금까지 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았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인 과방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 인원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좁은 과방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술자리 장소가 되거나 밤늦게 차를 놓친 학생들의 잠자리가 되기도 하면서 제 역할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과에서는 새롭게 과방 분위기를 바꿔 보면서 과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생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랍어과는 개강 이후 붉은 광장에 항상 이동과방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과 학생들에게 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랍어과 과 회장 남종필(3)군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엔 과방이 턱없이 좁아서 학생회에서 책상을 노천으로 옮겨 놓기로 했다"며 "편입생들, 고학번과의 만남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날씨가 좋은날은 언제나 노천에서 이동과방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번 이동과방의 의의를 밝혔다.

이 밖에도 각과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어키어과의 경우는 빈약하나마 키보드와 오디오 시설들을 설치해 민중가요를 비롯한 여러 음악을 과 학생들이 항상 듣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강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선뜻 과 방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과 방에 잘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준우(상경·무역 2)군은 "과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함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낯설다. 기껏해야 술자리나 체육대회등 연중행사가 있어야만 모이고 그 외에는 정말 모이기 힘들다"며 동기들을 자주 보지 못함에 서운해했다.

올해에는 특히 학부제로 인해 신입생들에게는 과 방에 대한 인식이 색다르다. 김영일(사회·신방 3)군은 "신입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루는 신방과 하루는 행정학과 등, 이렇게 마치 동아리를 찾아다니듯이 과 방을 찾고 있다"며 과에 애착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정착되지 않은 학부제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 속에서 과 방이 과학생회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보다 먼저 선배들이 과방의 주인으로 바로 설 때 모든 과 구성원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남균 기자

음식문화〈2〉 — 독일

독일의 근대화와 식생활의 변화

현재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는 돼지고기와 감자로된 요리를 들 수 있다. 음료수로는 생수, 커피, 맥주, 포도주를 거론할 수 있 것이다. 독일의 대부분 지역이 박토인데, 도토리나무가 잘 번식되는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들의 잎이 떨어져 소맥재배에 최적인 부식토를 형성시킨다. 이 소맥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포도주 생산이 안되는 중북부 독일지역에선 이 소맥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도토리 나무는 독일의 상징나무다. 석회질이 많아 천연 식수가 부족했던 독일인들은 라인강과 모젤강 언덕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와 위에서 설명한 맥주를 흔히 일상 음료수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중세 독일인들은 항상 얼굴이 불그레했고 취중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식관습으로 인해 개인간의 벽이 없는 편이며, 거친 공동체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한 중에 홍차와 커피가 전래되었는데, 홍차와 커피는 식탁에서 과음을 몰아내고, 우아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데는 안성마춤이었다. 저녁 늦게까지 만찬을 즐긴 귀족들은 아침에는 식욕이 없었는데, 소량의 빵과 함께 차나 커피를 마셨다.

이러한 아침식사 습관은 차후 일반 민중에게도 퍼져 오늘날 아침식사의 전형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거친 공동체주의가 순화되고 개인주의가 부분적으로 드입됐다. 감자는 16세기말 서유럽에서 전해졌는데 특히 1770년 곡물기근 이후 대량 재배 되었다. 감자는 부족한 빵을 대신하여 독일인들의 기근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감자재배로 인한 식량증산은 산업혁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거꾸로 산업혁명은 식량증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귀족들 내지는 상층 부르주아지들만이 향유하던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식사예절을 음식의 대량생산과 더불어 점차 일반 민중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즉, 생활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음식과 식사예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의 대량생산과 통조림기술의 발명을 통해 음식이 상업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신맛이 독일의 전통적인 맛이데 독일 근대화의 쟁점인 산업혁명기에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단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독일인의 근면과 검소를 상징하는 음식으로서는 산업혁명기에 널리 퍼진 아인토프요리를 들 수 있는데 야채, 콩, 감자, 고기를 하나의 냄비에 넣고 끓인 요리다. 이 요리는 요리시간이 적게 들고 먹고 남은 것은 냄비를 데우기만 하면 쉽게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다. 나치시대에는 1달에 1번 아인토프요리를 해먹고 돈을 아껴 사회복지를 위해 헌사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아인토프를 먹으며 독일인 공동체의식을 키워가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음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권위주의에 의거한 강력한 독일 민족 공동체 형성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노 명 환

〈본교 인문대 사학과 교수〉

생활 시평

"자신있게 보여줍시다"

서울캠퍼스 율동패가 새내기 모집을 위한 공연을 할 계획이다. 붉은 광장과 상경대 앞, 열린 공간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굳이 공연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고 의도하지 않아도 율동의 참맛을 느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와 모임들의 특성을 알 수 없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이던 새내기에게는 율동패의 활동과 율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율동패의 새내기 맞이 거리 공연이 긍정적인 것은 새식구를 율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만난다는 점이다. 각각의 동아리의 대자보 선전 외에 자신들의 특성을 발휘해 새내기를 맞이 한다면 외대는 이즈음 외대만의 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우연히 들른 한양대의 경우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동아리방에 앉아 새식구를 맞이하지 않았다. 학생회관 앞 마당에서 열심히 새식구를 맞고 있었다. 노래 동아리는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하고 무예동아리는 검과 옷을, 역사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시회 등 하나의 문화마당에 들른 뜻한 착각을 들게 한다. 새내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의 특성과 자랑, 역사를 펼치는 것이다. 각각의 동아리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한줄기가 되어 대학문화는 꽃을 피운다. 동아리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모습으로 새내기들은 대학문화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외대에서는 동아리들의 자기 문화 보여주기와 참여시키기의 적극적인 모습이 활발하지 않다. 보다 많은 외대인이 학생회와 동아리에 묶여 외대공동체를 살찌워 나가는 작은 시작은 새식구를 맞는 적극적인 준비와 자신감인 것이다.

안제민 기자

한승곤기자

각 과·동아리마다 공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캠퍼스의 학생회관으로 마치 연립주택을 연상케 한다.

서울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곳은 의례히 학생회관이다.

6평 남짓한 과방에 책상, 의자, 캐비닛을 배치하면 남는 공간은 3-4평. 과 정원 150명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각과에는 5종류의 학회가 있는데, 학회 방은 단 2개뿐이니, 따라서 1개의 방이 과 방에서부터 학회, 풍물 패, 노래 패 등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어떠한 기능이라도 해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본교 건립 이후 몇 개의 건물이 세워지고 옮겨지고 했지만, 변함없이 좁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과방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과 성원들에게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토론의 장으로써 학생회 문화를 이끌어야 할 과방·동아리 방이 정원의 10분의 1 정도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협소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약속 장소로도 이용되지 않는, 잠시 들렸다 가는 지저분한 곳이 되어 버렸다. 당연히 과방·동아리 방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에 대해 법대 기획부장 이기원(3)군은 "평소에 불편한 점을 접어 두고라도 학술제 기간이면 학교에 빈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찻집에 가서 세미나를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학습 생활 공간이 부족한 본교에 불만을 토로한다.

한편 동아리방이 없어 매주 수요일마다 사회 과 학관 건물에서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는 광고 동아리 에드 라인(AD LINE)의 회장 강병화(동양·터어키3)군은 학교 시설이 협소하긴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며 "실제로 동아리들이 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혹시 사용하지 않은 방이 있는 경우에는 방이 없는 동아리에게 배분하자"라고 제의한다.

"좁아서 못살겠다"

협소한 공간의 효율적 이용 필요

오는 3월 7일(수) 학생회관 뒷편 고시원에서는 사법고시준비반(사시반)이 학군단 건물 4층으로 입주한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시반이 쓰던 공간에 학회나 세미나 동아리들이 입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월치 않다. 나머지 행시·외시반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되나 이 또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밖에 현재 건설중인 교수연구동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각 건물에 있는 교수 연구실 이전하고, 그 곳에 각 학회들을 입주시키고 대신 학회들이 쓰던 방을 풍물패나 문예패 등이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학생회관 1층에 있는 학생처, 우체국, 출판부 등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나 빈곳을 찾아 헤메다 닌다고 해서 근본적인 공간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먼저 정해져 있는 공간에 나무판자로 닭장처럼 칸칸이 벽을 세우고 있는 각 학생회부터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건물도 필요하다.

자신의 벽을 허물고 진정 모든 학생들의 생활 중심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학생 회관의 공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상대는 '학회 운동 활성화' 차원으로 8개의 학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사회과학계열 역시 7-8개의 학회가 생길 예정이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공간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윤승노 기자

우리 고을이 름찾기

이번주는 필자의 사정으로 한주 쉽니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소개

〈숫자는 전화번호〉

공 연 분 과		사 회 분 과		학 술 분 과	
영화울림	4544	민중미학연구회	4545	해외문학회	4552
관현악반	4561	한우리	4546	TIME	4556
목요음악반	4570	노곳떼	4547	ALESEC	4560
고전기타반	4571	통일문학회	4548	ALA	4562
얼소리	4574	외대문학회	4550	컴퓨던트	4580
합창반	4585	사회철학회	4551	우리말연구회	4602
외대통기타반	4589	역사연구회	4553	국제관계연구회	4606
연극반	4543	프르메테우스	4555	체 육 분 과	
새물결	4607	미오지	4603	배구반	4538
탈반	4611	매듭풀기	4583	검도부	4541
민속악놀이반	4612			볼링부	4568
				스키부	4584
				테니스부	4608
				농구반	4609
				핸드볼	4610
				조정반	4615
				헬스에어로빅	4616
				태권도반	4617
봉 사 분 과		예 기 능 분 과		종 교 분 과	
		서우회	4540	ZVF	4539
실천사랑	4569	산악부	4542	기독학생반	4559
로타렉트	4563	사진반	4572	한사랑	4565
스카우트	4567	그림촌	4573	CAM	4606
KUSA	4566	해갈	4595	예수전도단	4557
호우회	4578	온누리	4586	UBF	4558
국토순례반	4594	바둑반	4596	CCC	4577
		에드라인		기시연	4554
				SAINT	4564
				증산도	4575
				외대불교회	4576
				빛을찾은사람들	4581

새내기 여러분!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르신다구요? 이 란을 참고하세요.

문화응달샘

새 책

박재동 지음

제 '억' 공화국

그림: 박재동, 글: 엄민희, 한겨레/6,000원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박재동씨의 '한겨레 그림진'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출판됐다. 만평과 더불어 덧설명을 하고 있는 엄민희씨의 글은 지난 95년 한 해를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만화에 담긴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듯이 지난 한 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세계화로 시작한 YS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의 현장을 다시 느끼게 한다.

'어처구니 없는 한국 현대사'

김희정·신주희·이재경·이형구 지음. 지성사/6,900원

'바른 글을 위한 자유기고가 모임'의 공동작품으로 1년 남짓한 자료 수집과 토론, 취재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작가들은 '대구가스 폭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의 참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고 공화국', '부실 공화국'이란 새 국칭(?)을 얻었던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게 반성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달라지는 모습으로 '다시 서자'고 말하고 있다.

생활도서관 추천도서

감철 군화

한울/채린던 차미례 옮김

이 작품은 미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20세기 초에 노동자 대중을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친 혁명가 어니스트 에버하드의 이야기이다. 그의 아내 에비스 에버하드가 기록해 둔 원고가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로도 7백년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마침내 사회주의 세계 국가 아디스의 한 문헌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공개된 형식을 취한 이색적 구성의 결작이다. 소설을 읽어감에 따라서 자본주의 발달사와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이면에 대한 상당한 역사적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심장은 탄환을 동경한다

밀굴/노동은, 김윤교 편저 7,700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는 주로 '문화산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산업은 정치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비판적으로 읽혀져야 한다.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전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단순한 비평가의 입장을 넘어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된 음악가, 미술가, 문학인, 영화인, 문화 이론가 등 불멸의 예술가 18인의 삶과 사상, 실천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무엇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가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제각기 면밀히 반응하고자 했던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은 지음

〈시청각실 상영 영화〉

워터월드(WATER WORLD)

일시: 3월 19일(화)
1회 14:00
2회 17:00
장소: 대강당

〈이조의 영화〉

카지노

많은 영화광들에게 컬트적 숭배를 받고 있는 마틴스콜세지 감독의 15번째 작품이다.

70년대 라스베거스를 배경으로 마피아에 의해 카지노가 좌지우지되던 시절 라스베이거스인들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이다.

마틴스콜세지와의 단짝 배우 로버트 드 니로와 '원초적본능' '슬리버'의 샤론스톤이 주연한 96년 미국 평론가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다.

이문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18일)	카레라이스 (₩1,300)	돈육김치찌개 (₩1,300)	설렁탕 (₩1,400)
화(19일)	비빔밥 (₩1,300)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덮밥 (₩1,300)
수(20일)	오무라이스 (₩1,300)	두부된장찌개 (₩1,300)	하이라이스 (₩1,200)
목(21일)	소고기버섯덮밥 (₩1,400)	햄벡스넥 (₩1,600)	육개장 (₩1,400)
금(22일)	잡채밥 (₩1,300)	오징어비빔밥 (₩1,300)	참치김치찌개 (₩1,300)

〈제공: 생활협동조합·총무처 후생과〉

왕산

	조 식	중 식	석 식
월(18일)	북어국백반 (₩1,200)	선지국 (₩1,200)	돈까스 (₩1,500)
화(19일)	육개장 (₩1,200)	간짜장밥 (₩1,200)	고기미역국 (₩1,200)
수(20일)	반두국백반 (₩1,200)	사골우거지국 (₩1,200)	하이라이스 (₩1,000)
목(21일)	콩나물국백반 (₩1,200)	닭고기비빔밥 (₩1,200)	콩비지찌개 (₩1,200)
금(22일)	소고기국백반 (₩1,200)	설렁탕 (₩1,500)	우거지된장국 (₩1,200)
토(23일)		북어국백반 (₩1,200)	

※ 본 식단은 물품 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예일꾼 죽이기
1. 꽃다지 구속
2. 총괄

문예일꾼 탄압으로 이룬(?) 국가안보

계속되는 문예활동 자유 투쟁

고영진 기자

지난 2월 8일부터 종묘공원에서 꽃다지를 중심으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거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60·70년대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김지하씨와 신동엽씨 등을 비롯, 80년대에는 전반적인 예술 분야에서 문예 일꾼들이 탄압당했다. 특히 홍진남, 신학철씨 등 현실주의와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제재를 당했다. 90년대에는 조직운동과 관련해 많은 문화일꾼들이 구속당했는데 황석영, 박노해, 윤민석씨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그리고 또다시 지난 2월 5일에는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와 문예기획인 원용호씨가 구속되었다. 혐의 내용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이란 죄명이다.

어쩌면 앞으로 한달간 이러한 죄목으로 구속될 사람들이 더 나타날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번 4월 총선때까지는 말이다. 나라에 큰일이 벌어질 때만 되면 으레히 일어나는 공안 관련 사건들이라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를 정리한 노래책을 빌미로 그것도 작사, 작곡가가 아닌 편집자와 기획인이 구속됐다. '갈꺼야'란 노래가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투쟁 등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래의 가사는 단순히 통일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주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그들의 대안에 위치한 민중들의 투쟁에 필요한 문예일꾼들을 탄압해 결집력을 떨어뜨려 먼저 기선을 잡아 두려는 의도된 탄압으로 보는 것이 꽃다지측의 분석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그들의 부당성을 숨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국가보안법', 이제 이런 독재 정권의 대표 주자인 전, 노씨를 법정에 세우며 소위 문민 정부를 주장하는 이들이 왜 아직까지도 이런 악법을 근거로 문예꾼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이런 악법을 사용해야만 할까? 자신들 스스로 문민정부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모순된 문민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문예일꾼들은 자신들의 신념대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묘공원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구속자 석방및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 작곡가 윤민석 씨를 만나

"총선과 맞물린 긴장 조성용"

조선 노동당 사건과 연루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윤민석씨를 만나 당시 사건의 성격과 이번 꽃다지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 당시 구속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 92년 대선을 앞두고 생긴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때 '말'지 기자, 사업가, 은행원등 대략 60여명이 함께 구속되었다

- 대략 어떤 종류의 사건이었나?

= 90년대 초에는 조직사건 및 사상투쟁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다.

- 이번 이은진, 원용호씨 구속사건에 대한 견해는?

= 삼풍과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똑같이 5·6공시절에 만들어진 노래책을 왜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둔 긴장조성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 같다.

문화단신

이번에 상영한 영화 '로스텔지아'의 한 장면

'울림', 신입생을 위한 영화제 개최

영화 모임 '울림'이 지난 14일(목), 15일(금) 이틀간 대강당에서 신입생을 위한 영화제를 개최했다.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소개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14일 '노스텔지아', '스위티', '저수지의 개들'이 또 15일에는 '심플맨', '매탈자켓'이 상영됐다.

'울림'의 대표 김동진(정책·정외 2)군은 이번에 상영된 영화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개봉작이 많아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한것 같다"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밝혔다.

율동패, 새내기 모집을 위한 공연

외대 율동패는 오늘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새내기 모집을 위한 입시공연'을 갖는다.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오전 1시에 사범대 앞에서 열리고, 20일(수)에는 봄은 광장에서 오후 12시에 공연을 갖을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이문회(정책·신방 3)군은 "신입생들 뿐만아니라 모든 외대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율동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이 공연은 열린공간에서 외대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자연과 함께라면 강의마저 감미롭다

왕산(旺山)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용인캠퍼스 안에는 마치 백두산의 천지처럼 자리잡고 있는 호수가 있다. 바로 명수당이다. 겨우내 꽁꽁 얼어 붙었던 명수당의 몸이 풀리면서 다가온 봄에 열리는 학생회의 해오름식에는 명수당에다 오리들을 띄우며 그 해의 소원을 빈다. 이처럼 해오름식때 오리를 방생하는 행사를 한 후 언제 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해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명수당의 오리가 백조가 되어 겨울에 날아간다는 거짓말 아닌 설이 생기기도 했다. 사실 겨울이면 안내실 아저씨들이 다 잡아 먹는다는 설도 있지만.

명수당의 해동과 함께 찾아온 봄. 봄볕이 따사로와 지면 으레히 수업시간에 눈을 감고 공상에 빠지는 학동들이 잦아지는 법, 센스있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병아리떼처럼 몰고 명수당의 풀밭을 야외강연의 장소로 주로 이용하기도 한다. 딱딱한 책상과 의자로 가득한 강의실에서 공자니 맹자니 하던 강의시간은 명수당의 폭신한 풀밭과 명수당의 잔잔한 물처럼 흘러 교수와 학생들의 사이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평소 수업시간에 졸던 학생들도 이시간만큼은 생기발랄하게 주인공이 되어 노래도 부르고 재치있는 말솜씨로 교수님에게 플러스점수를 따기도 한다.

이렇게 강의만 하고 끝내기 아쉽다면 눈치빠른 학생들이 얼른가서 걸죽한 막걸리에 김치와 두부안주를 준비하면 어떨까. 옛부터 주도(周道)는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이라고,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마시지 말고 교수님과 풍월을 읊으면서 함께 시대를 논하고, 우리의 희망을 향해 건배한반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정을 쌓아 간다면 대학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명수당은 학생들의 뒷풀이 장소로도 이용된다. 과 총회가 있는 날, 친구의 생일이 있는 날, 모현까지 걸어가거나, 혹은 차를 타고 잠실이나 강남역을 배회하기보다 확트인 공간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곁들인다면 노래방이 웬 말이며 나이트가 웬말이겠는가.

석양이 발갛게 지면 어느새 명수당은 하얗게 차려입은 풍물패들의 신명나는 풍물소리로 가득해 진다. 그 소리에 맞춰 어색해하지 말고 함께 어깨춤을 배워보자. 얼- 쑤, 우리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

그뿐이겠는가. 강의가 없을 때 명수당은 학생들에게 있어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된다. 문화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용인캠퍼스의 동아리들은 명수당을 끼고 자신들의 특기를 선보이는 장소로 사용하면 멋드러진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동아리의 야외전시회, 그리고 검도반의 연습 모습도 진풍경을 이룬다. 특히 새내기를 모집하는 요즘 동아리 활동의 모습을 선보이는 장소로 이용해도 좋을 듯하다.

강 용 구
〈자연·정보통신학 2〉

'21세기 한국 연극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기성·민족극간의 조화속의 '희망찾기'

사 회: 김명곤(극단 아리랑 대표)
토론자: 김윤철(연극 평론가)
박용재(스포츠조선 문화부 기자)
이영미(한국예술연구소 연구위원)
이윤택(연희단 거리패 대표)
임진택(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의장)
정진수(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일 시: 1996년 3월 13일
장 소: 문예진흥원 강당
주 최: 극단 아리랑

1920년대 신파극 이후 80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연극계가 오는 97년 '의왕세계연극제'를 앞두고 그동안 무책임한 선정주의, 제작비의 영세성, 창작극의 상대적 답보 등 한국연극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거듭나고자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사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한국연극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해 보자.

김윤철: 우선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부른 '논리성 부족'과 '독창성 부족'이다. 얼마 전에 열린 '서울연극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극중극 구조'를 사용해 새로운 형식을 고민하기 보다는 흐름에 편승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연극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한국연극계의 현실에 기인한다. 일정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에게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미: 최근 연극계의 동향을 기성연극계(한국연극협회 계열)와 80년대 이후 노동현장에서 주로 공연하던 민족극계(민족극운동협의회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성연극계는 91·92년 이후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이는 작품경향이 뮤지컬, 코미디, 여성 등 다양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87에서 91년이 최대의 호황기였던 민족극계는 91·92년에는 급작스런 불황에 빠졌다.

김윤철: 기성연극계의 작품들이 정치성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루자 관객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마당극 역시 이념적 측면에서 벗어나려고 미학적 측면으로 다가가 마당극을 무대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극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이 민족극계 침체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영미: 공동방향 모색은 필요하지만 결코 미학적 결합이 '중화'나 '동질화'는 아닌 것이다. '주류(기성연극계)와'비주류(민족극계)'는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서로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일으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용재: 기성연극계, 민족극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두 계열의 합작 작품을 선보이는 건 어떤가.

임진택: 구분은 필요하다. 단지 서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당극'이라는 형식의 '민족극'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의 기성연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연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인 만큼 두 계열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진수: 양 협회(한국연극협회, 민족극운동협의회)가 공존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양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연극에 있어 이념과 방법론을 달리 하는 것이야 말로 서로 견제·균형을 통해 한국연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 논의는 기성연극계와 민족극계가 서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결합과 함께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방향을 모색하는데까지는 논의되지 못해 이쉬움이 남지만, 이제 한국 연극의 '희망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윤승노 기자

MBC 전면파업 돌입 배경과 향후 전망

MBC 노조 찬성 80.8%로 전면파업 돌입

'낙하산 인사' 강성구사장 연임…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 의도

매 선거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일까?

바로 선거에 대한 방송들의 편파보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사들은 왜 그런 편파보도를 하는 것일까?

지난 14일(목) 오전 5시, 갑작스레 터진 문화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의 전면적인 파업은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매 선거때마다 자행되는 언론의 탈법선거운동

선거철만 되면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사람들의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불법·탈법 선거유세 등은 비단 후보자나 유권자, 선거운동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은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언론, 특히 방송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MBC 뉴스 데스크 3.12(火)	○YS, 이북도민 대표와 오찬 편집순서 과다 비중 -4번째 순서로 보도, 대만사태후에 가장 높은 순서 각당 활동보도 시간 차별 -신한국당:1분 10초, 국민회의:37초 민주당:23초 자민련:20초 ○YS사촌동생 구속사건 방송보도 없어
MBC 뉴스 데스크 3.14(木)	○MBC파업보도 없어 -MBC파업에 대해 아무 언급없이 방송진행 (백지연 앵커 불참에 대한 아무 언급 없음) ○대통령 동정보도 과다 비중 ○삼재사계 보도 -감삼재사계 사건을 그동안 보도하지 않다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지 그제서야 보도

〈선거감시연대회의〉

문화방송 파업 돌입의 배경

지난 92년 가을 '50일 파업'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MBC 파업사태는 현상적으로 '강성구 사장의 연임'에서 비롯됐다.

강사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MBC가 처음으로 맞이한 자사(보도부) 출신 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로 MBC에 안착했던 역대 사장들보다 오히려 더 무능한 사장이었는 평가이다.

과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타 방송사를 선도해 가던 MBC가 이제는 편성전략 부재로 인해 KBS보다 유익하지도, SBS보다 재밌지도 않은 얼치기 방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시청률 면에서도 MBC와는 비교가 되지 않던 SBS가 이제는 MBC와 똑같은 광고요금을 적용받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강사장은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MBC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파업 돌입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강사장 임명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이었다.

MBC 사장 선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강사장은 재임기간 중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뉴스 편집에 수시로 관여했으며 그 결과 불공정 방송은 군사정권때보다 오히려 도를 더했다는 것이다.

MBC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부의 의도

그렇다면 MBC 노조는 무슨 근거로 정부가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첫째, MBC의 사장을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방문진은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중 1명만이 야당인사이며 9명이 친여당인사이다. 구성인원의 성향을 보면 굳이 설명안해도 뻔하다는 것이다.

둘째,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전날인 12일(화)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이원종 정무수석과 김희집 방문진 이사장, 강성구씨가 만나 강성구씨의 MBC사장 내정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민주의식 고양으로 현 정권은 물권,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제 정부는 보다 높은 전략으로 언론을 통제해 편파보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이 다름 아닌 3선 임기가 끝나는 KBS 홍두표 사장과 MBC의 강성구 사장의 연임이었던 것이다.

지난 15일(금) MBC파업 이틀째 본관로비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이다. MBC노조는 강사장이 퇴진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MBC 노조 파업 향후 전망

이에 MBC 노조는 지난 11일(월)부터 3일간 전국 20개 MBC 본·계열사에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5%에 찬성률 80.8%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 15일(금) 방문진의 한사람인 김병익 이사가 전격사퇴 했다. 그동안 문화방송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방문진 김희집 이사장 등이 현 정권의 낙점에 따라 강성구씨를 MBC사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정, 이에 대한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방문진 김병익 이사 사퇴에 대해 윤병채 비대위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방문진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항의와 MBC 파업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결행된 것"이라며 "지난 13일(수) 방문진 이사회 도중 2명의 이사가 투표 참여를 거부하고 1명이 투표를 거부했던 사실에서 입증되듯 방문진의 사장 선임 과정 자체가 파행이었으며, 김병익 이사의 사퇴로 이는 재입증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 총 30여개 단체에서 MBC 파업에 지지성명을 보냈고, KBS노동조합도 지난 14일(목) '방송장악음모 저지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MBC노조와 연대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MBC 방송노동자들은 해고뿐만 아니라 구속까지도 불사하고 사장의 재임이라는 정부의 고도의 불법 선거전략을 저지시켜 낼 것이라는 결의로 충만해 있다.

박병수 기자

기자의 눈

미국의 용기

"미국은 신군부의 5·18시위 진압계획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얼마전 모 시사주간지에 보도된 미국 광주학살 개입 문서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말로만 떠들던 미국의 광주학살 배후 지원 및 조종 의혹. 이제는 '의혹'이 아닌 '사실'임에 모든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14일(목)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미국의 광주학살 지원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대회'에서 폭발되어 나왔다.

"설마 했었는데, 진실을 알고나니 배신감과 분노만이 남습니다."

"미국은 우리들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한 후,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촉구대회를 끝낸 5백여명의 시민·학생들은 더이상 짓누를 수 없는 분노를 이끌고 미대사관 항의방문을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이미 거리는 전경들로 꽉 메워져 있었다.

80년 5·18 당시 미국의 개입,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윤금이씨 사건부터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까지. 그러나 언제나 당당하게 웃고 있는 미군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본질을 알아버린 지금 우리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용산기지 반환,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전경을 동원해 미국을 보호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들이 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한미행협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광주학살과 같은 '군사개입 사전승인'과 같은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군사 작전지휘권을 반환해야할 것이다. 이것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울러 광주학살 개입에 대한 미국측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의 평등한 개정, 귀향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해줘야할 최소한의 죄값임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김주영 기자

열사여 부활하소서

지난 3월15일(금) 종묘공원에서 약 500여명의 철거민과 학생이 모여 96전국철거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의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 뒤 이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통한 선전전을 펼쳤다.

한승주 기자

사회단신

경원대, 학생 무더기 징계 및 고발

경원대 학생들이 무더기 징계 및 고발을 당했다.

고 장현구씨(경원대 89)의 분신 사망 이후 갈등이 악화되어온 경원대 사태가 이러한 학교측의 강경방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원대 학생들은 장현구 열사가 사망한 직후부터 경찰병원 영안실과 학교 정문앞 등에서 지금까지 농성을 하며 고문경관의 처벌과 92년 장현구씨를 고소·고발한 교수들의 사과를 요구해왔었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지난달 28일(수)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영석(무역 3, 총학생회장)군 등 2명을 제적 처분하고 6명을 무기 및 유기정학에 처했다. 또한 29일(목)에는 백승규(무역 4, 제적)씨 등 7명의 제적생을 성남 중부서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학교측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경원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92년 고 장현구 선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라며 학교측의 작태를 규탄하고, "총학생회장은 신병문제로 인해 당시 징계위에 참석조차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향후 경원대 총학생회는 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비롯, 징계와 고발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전씨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 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이 어긋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이송이 수감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용자 치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며 전씨 병원비 7백여 만원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95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됐던 박용길 장로(78세)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비부담해야 한다"며 치료비 9백여 만원을 전액 부담케 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으로 수감된 임신 8개월의 임산부 고애순씨에 대해서도 초음파 검사비용을 자비부담케 하기도 했다.

이렇듯 법무부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민가협 등 시민·인권 단체에서는 "모든 재소자·양심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비부담의 원칙을 고수해 온 법무부가 유독 전씨에게만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늘 푸른 자심— ①

"그 친구에게선 바람소리가 난다"

PM 8:00-연국연습
PM 6:00-8:00 고교 동문회
PM 4:00-5:00 미팅
PM 5:00-6:00 스터디 모임
PM 2:30-3:50 강의
PM 1:00-2:00 타임지 세미나
AM 9:00-11:30 강의

하루를 25시간으로 쓰는 젊음 —

4년간의 대학생활은
단 한 번뿐인 황금기 —
하루를 25시간으로 써도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진리탐구와 자아성찰,
그리고 드넓은 세계관 확립에 이르기까지
지성인의 스케줄엔 휴강이란 없습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창조적으로 리드해 가는
깨어있는 젊음 —
그 역동적인 젊음이
삶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지금 캠퍼스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
랜드로바가 함께 합니다.

랜드로바

4·11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민주화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어 민중들이 힘을 발휘하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에 본보에서는 4·11 총선 전까지 4번의 총선대비 시리즈를 다루고자 한다. 이 시리즈를 통해 지난 문민 4년을 정리하고 각종 대형사고와 총체적 부실로 인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사고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습니다"

당산철교 언제 무너질지 몰라

지하철 공사는 당산철교를 올해 말에 폐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당산철교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 다만, 서울 시민들만이 불안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고영진 기자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

김영삼대통령은 이렇게 내걸었다. 그러나 난데없이 대구에서는 도시가스가 폭발하였고 그에 이어 삼풍백화점도 20초만에 무너져 내렸다.

과연 김영삼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그런 구호는 왜 내놓았던 것일까.

그러한 구호 뒤에는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사고 후에도 아직도 곳곳에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당산철교 같은 한강 다리의 허약함이 바로 그중 하나이다.

"항상 떨고 있어요. 다리가 무너지면 당장 가방 벗고 윗옷 벗고 헤엄쳐야죠"

"친구들한테 다리가 무너지면 나한테 꼭 안부를 물어달라고 말해 줬어요"라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말은 어떤 공포영화의 대사가 아니다. 매일 당산철교를 건너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에 가득한 목소리인 것이다. 시민들의 불안처럼 당산철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작년 9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당연히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실공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막지 못했던 것처럼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일하게 언론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시민 500명이 사망했고 900명이 다쳤는데 문상은 커녕 사고현장에는 한 번 오지 않았다. 아마도 당산철교가 무너져도 김대통령은 이런 방법으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다.

그러면 무고한 시민들이 죽기전에 안전방책은 그 누구도 세우지 않는가?

"당산철교에 관한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공보실에서 허락을 맡아와요"

2호선 승무사무실 직원의 말이다. "올해 말에 당산철교 폐쇄할 거예요. 위험하니까 서행하는 거죠. 평소 속력의 반으로 그러는데 설마 무너지겠어요? 지금 담장 폐쇄하면 시민들이 교통불편에 시달릴텐데"

당산역 근무자의 말이다. 시민들 교통이 불편할까봐 염려되어 당산철교를 폐쇄못할 정도로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 시민들의 목숨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세계화와 국민 삶의 질 높이기와 역사바로 세우기 등 온갖 멋있는 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물론 그러한 알맹이 없는 선정성 구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세상을 달리했다. 아직도 안장되지 못한 삼풍의 30점의 유골은 이제는 무너져 버린 삼풍백화점 옥외주차장 한쪽의 분향실에 있다.

"사고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야. 어딘들 안전하겠나? 부실공사는 이 나라의 고질병인데.....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 라며 오늘도 서울 시민들은 당산철교 위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

허윤숙 기자

통합선거법 고찰

제15대 총선과 불평등

변 해 철
〈본교 법학과 교수〉

우리는 금년 봄을 제 15대 총선을 둘러싼 정치적 열기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될 이번 총선은 그간 추진해온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민정부수립이후 우리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정경유착·금권정치의 고리를 출발점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즉, 올바른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른바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제도화(1994년 3월 16일)되었다. 그런데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이 현직의원인 후보에 비해 여타 후보에게 또는 정당추천후보에 비해 무소속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소원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11조는 국회의원에게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보고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거개시일전까지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선거구민과의 접촉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선거기간내 후보자 등록이후에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여타 후보자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141, 142, 143조는 각각 선거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의 당원단합대회, 당직자 회의, 당원교육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거개시일 전까지는 이러한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정당추천후보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무소속후보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동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50조 4항은 다수당순으로 후보기호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 5, 6, 11, 17조가 정당후원회구성,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기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등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정당추천후보에 비해 무소속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헌법상의 참정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헌법이 정당조항(제8조)을 두고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도의 보장과 함께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등을 통하여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는 등 정당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매개체로서의 정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선거는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감시·비판·평가의 기회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것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 의원의 활동과 이에 대한 반대세력의 참여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총선에 바란다 ① - 4·11총선의 의미

총선, 통일로 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

오는 4월 11일 치뤄지는 총선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단순히 국회를 구성하는 인자들을 뽑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년의 대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격동기에서 의미지워지는 이번 총선의 성격이 향후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본보에서는 상반기, 4·11총선의 의미에서 부터 우리 대학사회에서 바라보는 총선의 올바른 방향들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이번 총선은 9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시기적 규정을 일차적으로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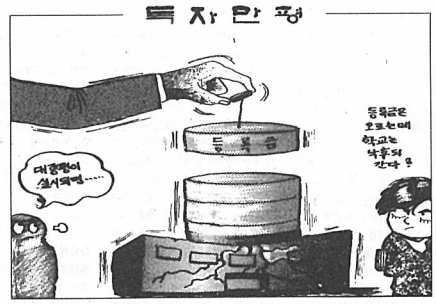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적 규정 속에서 그간 성장해온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집권 4년동안 뿌리깊게 자리잡아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현 정부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6·27 선거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게 이번 총선은 지난 집권 4년에 대한 국민들의 총괄적인 중간평가의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현재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여소야대 국면을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총선의 결과가 단지 현 정치권 내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느냐 혹은 누가 1당이 되느냐 따위에만 쏠려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써의 이번 총선은 지역패권주의 친미보수대연합 구도 등 그간 우리 정치사에 뿌리깊게 자리잡았던 폐단들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민주적인 인사들이 대거 당선돼 민주대연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가의 기로로써 그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이 21세기 우리 사회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통일된 국가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자만평



등록금 또?

노인석〈상경계열 1〉

正道경영·초우량LG
● 고객서비스/불공정사례신고
● TEL : 080-023-515(수신자부담)
(02)3777-6088
FAX : (02)3777-6099

LG

호남정유는
세계최대로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최고를 원합니다.

●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론 출시 및 스타주유소와 고객서비스팀 운영
● 세계 최초로 재생가능소재의 윤활유 용기 사용 및 해양오염 방제선 운영
● 호유배구단, 푸른문화예술축제 및 신장 기금과 월드컵 유치성금 기탁
● 종합에너지, 석유화학산업 PACESETTER 및 '95 공정거래 우수업체로 선정

21세기 세계 초우량기업을 목표로—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론으로
휘발유의 브랜드 시대를 연 호남정유—
그 이름에 책임지는 자세로
호남정유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기업으로,
공해방지에 앞장서는 환경기업으로,
문화, 체육, 사회사업에 힘쓰는 국민기업으로,
중화학 공업을 이끌어가는 국가기업으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늘 풍요로운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 등록금, 그 뿌리를 알자 —— ②실험실습비

"실험기자재요? 제가 쓰는 건 책상과 의자 뿐이예요"

총 예산중 5%이상 책정·지출 편성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돼야
인문·사회계열학과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실험기자재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 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실험기자재 70%이상이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이 없는 기자재로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험기자재의 부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실험실습을 할 물적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과 둘째, 준비되어 있는 실험기자재조차 노후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본교 이학·공학계열의 실험기자재의 현황과 실험실습비의 올바른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이·공학계열 학생 가정에는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각각 24만원, 31만원이 더 비싼 등록금 고지서가 교부되었다. 대학당국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다면 이·공계학생들은 인문계열보다 몇 자리수 더 높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 있을까. 전공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교육여건을 누리고 있는 걸까.

"딴 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과가 쓰는 기자재는 정말 책상과 의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대에서 만난 김주연(수학·2)양의 말은 이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자재, '걸음마' 수준

공대는 작년 자연대로부터의 '독립운동'으로 올해 제1대 공대 학생회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공대의 각 과 나이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갓 태어난 과도 있어서 교수충원·기자재설비 등 교육환경·제정·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직 걸음마 상태다.

공대 정책부장 박종태(제어계측·2)군은 "신강의동 4,5층에 위치한 실험실 거의 대부분이 기자재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계열별 등록금 차등인상률은 해마다 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교육재정 확보투쟁속에서 특히 실험실습비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신강의동 4,5층을 거의 메우고 있는 공대 실험실은 대부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한 실험실은 현재 CATV, LAN공사 현장사무소로 용도가 탈바꿈돼 있었다. 그리고 '운영체제및 네트워크 실험실'이라는 푯말이 걸려있는 곳은 컴퓨터공학 대학원 연구실로 대체되고 있었다. 대학당국의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문을 연 김천식(컴퓨터공학전공 석사 2학기)군은 "현재 대학원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조차 학부생들 것이고 한 학기 대학원 학술지원금은 고작 13만원"이라고 공간과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올해 16년을 맞이하는 자연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연대 학생회장 김홍철(물리·3)군은 "기자재가 오래 돼 실험을 하면 오차가 커서 데이타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며 매년 증액된다는 실험실습비가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현재 물리학과에서 쓰이고 있는 기자재는 88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화학과의 경우도 86년도산 기자재가 아직도 실험실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 공간에 대해 김군은 "그나마 자연대에 있는 실험실도 대학원생들이 주로 쓰고 있고 학부생들은 둘러리로 전락됐다"라며 "대학당국에게 자연대 건물을 실험실로 전용하고 강의실을 신강의동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김차성(컴퓨터공학과)교수는 "우리과는 학생수도 많고 대학원도 있는데 과예산이 타 과에 비해 적다"라며 "과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 원칙이 없다"라고 교비배정에 대한 원칙의 시급함을 갈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재 담당 김태문씨는 "각 과 기자재 품목선정의 재량권은 학과장 교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99.9%모두 다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실험·설비기술에 따른 본교 94년말 기자재 보유율은 29%밖에 미치지 않지만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는 97년도에는 65%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방식의 '대수술' 긴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험실습비는 교육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만큼 5%로 증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교 94년도 실험실습비는 총 예산의 0.60%, 95년도 0.70%만이 집행됐다. 공대의 각 학과가 4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자연대는 수학과와 전산학과를 제외한 과가 6천-9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표참조〉 그러나 공대의 등록금은 자연대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이·공학계열간의 차등 인상의 근거가 희박해지는 부분이다. 아울러 교육여건과 실질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기성회비가 현재 인문·이학·공학계열간에 차등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은 대학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차등근거에도 이치가 맞지 않을뿐 아니라 각 계열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실험실습비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대수술'이다. 이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면 △실험실습비 내역의 공개 △학과별 실험실습비 지출예산 편성과정에서의 학생참여보장 △전 학과의 실험실습비 편성 및 지급이다. 대학교육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고등교육인만큼 강의실 교육뿐아니라 현장교육 및 실험실습교육도 내실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학 및 공학계열뿐 아니라 인문 및 사회계열에도 실험실습비가 달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법학과의 모의재판, 행정학과의 모의국무회의, 사학과의 춘·추계답사, 어문계열의 원어연극 등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연구·조사·발표 활동의 전반이 실험실습비 지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곽근영 기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실험실습비는 총 예산의 5%수준으로 증액돼야 한다

〈표〉 95년도 각 학과 실험실습비 예산요구 현황

자연대	수학과	1천9백8십만원
	물리학과	9천4백6십만원
	화학과	8천2백2십만원
	전산학과	3천2백2십만원
	환경학과	6천6십만원
	미생물학과	6천5백만원
	통계학과	6천6백8십만원
공 대	제어계측공학과	4천2백2십만원
	산업공학과	4천6백5십만원
	전자공학과	4천6백5십만원
	정보통신공학과	4천1백4십만원
	컴퓨터공학과	3천7백만원
합 계		5억9천7백만원

외대와 나

마음의 지팡이

장 동 원

〈본교 강사, 교육심리〉

역지사지(易之思之)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될 때 내 입장이나 처지에서만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전부터 내려온 고어이긴 하지만 이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갖게되는 생각이나 주장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갖게되는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대학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들, 예를 들어 학생들간의 불화와 다툼, 교수와 학생간의 갈등, 대학당국과 학생들간의 대립 등과 같은 현상들, 넓게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등과 같은 현상들도 요체는 자신이 처해있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처지는 경시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상태를 자기중심성(egocentris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세상의 수많은 불화와 갈등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폴라니(Polany, 1966)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자기중심성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두사람이 캄캄한 동굴속을 서로 다른 지팡이를 가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은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각자의 지팡이를 도구로 삼아 동굴속을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팡이를 도구로 삼아 동굴속을 탐색하는 이들 두사람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의식되지만, 캄캄한 동굴속을 여행하는 중에 어느덧 자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는 의식되지 않게 되고 점차적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동굴바닥의 상태만이 초점 자극이 되어 이를 동굴바닥의 실체적 속성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그 두사람들이 모르게 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꾸어 준다고 하면 두사람은 동굴바닥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짧은 지팡이로 바꾸어진 사람은 자기앞에 놓여진 길이 내리막길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자 폴라니의 설명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가 각자 자신의 '입장'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사상을 지각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폴라니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지팡이를 지니게 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모습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외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지팡이를 간직하는 나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마음의 지팡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마음을 넓게하여 나를 둘러싼 타인들의 입장과 처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성숙한 마음가짐을 우리 모든 외대인이 지님으로써, 우리의 외대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멋진 진리의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소, 돌리도

○… "우리집 황소가 해마다 2마리씩 줄어들어요"라는 하소연과 한숨 소리가 남쪽에서 메아리쳐…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시골서 올라온 흑산, 평소 아끼던 1학년 1학기·2학기 소가 등록금으로 팔려가고, 얼마전 설날에는 2학년 1학기 소 마저 우시장으로 직행했다는데…

대학생활 1년 남짓, 줄어드는 우리집 황소.

크로니클자 가라사대, 해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이 흑산들의집안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을런지…

〈명〉

○… 신한국당 사무총장 강삼재씨가 드디어 어릴적 꿈을 이뤘다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이름의 시계회사를 하나 갖는 거라나…

시계를 주민들한테 돌렸다는데…

삼재야! 그러다가 영원히 정치를 시계(쉬게)하는 수가 있단다 이.

〈형〉

○… 80년, 한 마을에서 두 명의 깡패아이가 아이들 돈을 뺏고 있었다.

근데 깡패 아이들 개성이 뚜렷. 한 명은 코가 크고, 한 명은 머리가 번쩍, 한 아이가 돈이 없다고 버티자 대머리 아이가 때리기 시작. 초장에는 같이 싸우던 아이 이내 힘이 빠졌는지 줄곧 맞기만.

근데, 코큰 아이는 손하나 까딱 않고 뒤에서 요기 때려라, 조종만 하다 결국, 방범대원 아저씨에게 잡혀가서 이후 소식이 없었다.

〈병〉

○…봄이오면 꽃이 피듯 언제나 총선이면 공안사건이 피어난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우며 「꽃다지」대표를 구속시켰다. 봄에 꽃을 보면 향기 맡고 좋아해야 하는데 개네들은 왜 자꾸 꽃따지?

〈균〉

왜 꽃따지?

비둘기철판

왕산골

□ 모꼬지 갑시다

· 중국어과 연합 모꼬지가 열립니다.
때: 3월 22일(금) - 3월24일(일)
〈중국어과 학생회〉

· 이탈어과 인도어과 미얀어과 일본어과의 연합 모꼬지가 3월 29(금) - 3월 30일(토) 양일간 각각 열립니다.
〈착한 비둘기〉

· 아프리카어과 신입생 환영회 및 연합 모꼬지가 있답니다.
때: 3월 29일(금) - 3월 31일(일)
〈아프리어과 학생회〉

· 태국어과 연합 모꼬지가 있습니다.
때: 3월 30(토) - 31일(일)
〈태국어과 학생회〉

□ 알립니다

· 동구어대 동아리(율동패, 노래패, 영상패, 농구부)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동구어대 학생회실로 문의 바랍니다.

· 기록 문학회는 오늘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동아리입니다. 언론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오십시요. 기록 문학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323호 독도문제연구소에서 매주 화- 금 오후 6시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 축하합니다.

· 공대학원자주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승석이의 생일을 무지막지하게 축하해요..

이문벌

□ 알립니다

· 총학생회에서 영상사업단을 새로이 모집합니다. 영상을 통해 새날을 열어가고 싶은 많은 이들을 기다립니다.
지원서 교부처: 총학생회실, 외밭추 내 영상사업단 방.
지원서 접수: 3월14일(목) - 3월21일(목)
면접: 3월 22일(금)
특혜: 국내외 단편 독립영화 관람, 첨단 영상자재 교육 및 영상론 교육, 컴퓨터 지도, 총학생회 행사 특별 채용
〈총학생회 영상사업단〉

· 모의 월드컵이 열립니다.
때: 3월 25일(월) - 4월 4일(목)
〈축구부〉

· 진주 동명·제일여고 개강 동문회 합니다.
때: 3월 22일(금) 늦은 5시
곳: 노인정
〈진주·동명동문회〉

· 이란어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때: 3월 19일(화) 늦은 5시 30분
곳: 0325
〈이란어과 학생회〉

· 도서관 자치 위원위에서 알립니다. 앞으로 도서관 5층 휴게실에서의 흡연을 금합니다. 흡연은 6층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서관 자치위원회〉

· 노동자 민중후보와 함께하는 '96총선 대토론회가 3월 19일(화) 늦은 4시에 열립니다.
곳: 서강대 다산관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들〉

· 개포고 동문회 합시다
때: 3월 18일(월) 늦은 5시
곳: 깡통

· JOY 친구 초청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3월 27일(수) 늦은 5시 30분
곳: 3308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 모집합니다

· '더불어 사는 삶' 성동 야학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야학이라는 이름 앞에 주저하십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달려오십시오.
연락처: 284-7000
〈성동 야학〉

· 외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핸드볼부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때: 언제나
곳: 상경대 지하 핸드볼부실
〈핸드볼부〉

□ 축하합니다.

· 태준이형! IAA1과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해요.
〈ADLINE〉

□ 기원합니다.

· 3월 26일 법학과 이격호군이 군입대를 합니다. 그의 무사 건강을 빕니다.
〈법학과 학생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서양학대 해오름식 19일 예정

대동놀이 등 신입생 환영 행사 준비

서양학대 학생회 1년 기조 및 공식출범을 선포하는 장이 될 해오름식이 오는 19일(화) 200여명의 서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양학대 풍물패 연합의 신명난 풍악소리에 어우러진 길놀이로 시작될 이날 해오름식 1부행사는 △서양학대 학장 인사 △방중사업보고(새내기 새로배움터, 공장활동, 간부수련회) △등록금투쟁의 결의 등으로 마무리된다. 신입생 환영행사로 진행될 2부는 축하공연, 대동놀이, 술담그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와 관련 서양학대 학생회장 강석헌(노어·4)군은 "간부들이 처음 준비하는 행사라서 절차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해오름식을 통해 서대 2000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자각했으면 한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각 과 총회 일정〉

서울		용인	
날짜	일정	날짜	일정
14일	영어교육과	7일	서양학대 7개학과 정기총회
15일	이탈어·터키어과	11일	체코어과
19일	불어교육과	12일	미인어·루마니아어과·수학과
22일	한국어교육과	14일	이탈어·폴란드·유고어과
		15일	태국어·아프리카어·중국어·헝가리어
		18일	사학과 정기총회
		20일	인도어과 정기총회

제4차 확대운영위회의 열려

교육재정투쟁 집중 논의

서울캠퍼스 제4차 확대운영위원회의가 지난 12일(화) 대학원 건물 201호에서 30여명의 참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으로 △서총련 대의원대회 △봄놀훨 △복지장학금 문제 △식대문제가 상정되었으며, 이후 교육재정확보투쟁에 대한 교양과 토론이 있었다.

○… 교육재정투쟁에 대한 논의에서 법과대 학생회장 황인목(법학4)군은 "학자투쟁은 대중적이고 잠기적이어야 하며, 지난 학자를 평가하고 학우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상층단위과 기층단위의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윤상호(신방 4)군은 "환불투쟁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깍기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며 확실한 후속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다 강도 높은 투쟁 △선전활동 강화를 위한 교문 게시 공간 마련 △등록금 투쟁집회 결의를 논의했고 이후 일정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교육재정확보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제5차 확대운영위원회의는 오는 25일(월) 열릴 예정이다.

한해살이 개강을 맞아 각과마다 정기총회 준비에 부산하다. 한승주 기자

이시람

□ 20년 근속의 이발소 박돈규씨 아저씨를 만나

"한가지 일에 열중하는 외대인이 되길…"

"학생들 시이나 직원들 시이나 정이 많이 메마른 것 같아. 세상이 변하니까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머리를 깎았던 학생이라도 만날 때면 먼저 인사를 하고 술집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술 한잔 권해주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야"

지난 77년부터 약 20년 동안 외대 이발관에서 일해오신 박돈규 이발사 아저씨. 박씨 아저씨는 2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대를 바라본 외대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담히 담배연기를 뿜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신 아저씨의 모습에서 어느덧 달라져 버린 외대인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외대인들에게는 어떤 머리 스타일이 인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박씨 아저씨는 "옛날에는 깎아달라는 머리스타일이 참 단순했지,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말도 마. ○○가수처럼 깎아달라, ○○배우처럼 깎아달라며 취향도 너무 다양해졌어"라며 "어떻게 하겠어?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 미용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말이야"라며 멋적게 웃어보였다.

이어 박씨 아저씨는 이발소 운영상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 얘기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 발관이 너무 외진곳에 있어. 인테리어도 뛰어나지 못하고 말이야.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학교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외관도 세련되게 꾸미고 인원도 늘리고, 조금더 육심을 부리자면 도서관 지하나 학생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보다 가까이에서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싶어"라며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한 아저씨는 곧 "가까운 곳 놔두고 학교 밖까지 나가 머리를 깎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해"라며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의 모습을 중심으로 둘러본 이발관 내부는 여느 이발관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박씨 아저씨의 따뜻함이 빈 공간들을 채워주고 있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박씨 아저씨는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며 넉넉한 웃음을 흘렸다.

박수범 기자

외발추, 강의 백서 발간

강의 계획·평가서로 구성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는 올해 신입생과 재학생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한 강의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5개 영역의 교양 과목들에 대한 강의계획서와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결들어져 만들어진 강의백서는 외발추의 건의를 대학당국이 받아들여 지난 1월 중순부터 준비하여 재정적 도움을 받아 추진한 것이다. 강의백서 발간 주체를 맡은 이길용(상경·경제 2)군은 "강의백서를 통해 수강신청시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알아가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고 한편으로 학생측이 요구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으려는 대학당국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용인캠퍼스, 분리수거 차질

구성원의 질서의식 필요

용인캠퍼스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됨에 따라 본교도 각 건물 실내에 총 73개조, 실외장소 총 25개조로 설치·활용하고 있으나 성원들의 질서의식이 부재로 실상 쓰레기 분리수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총무처는 학생들의 경우, 각종 캔과 병은 소각 가능한 일반 쓰레기류에, 학과 및 행정 사무실과 교수연구실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는 별도로 정리해서 분리수거함 앞에 모아둘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용인캠퍼스 서은택 총무과장은 "무엇보다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최소한의 공중도덕을 당부했다.

삼환기업, 1억원 기부

외대 발전기금으로 이용

용인캠퍼스 건립부터 본교의 건물공사를 맡아온 삼환기업이 지난달 외대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증했다. 연구협력처를 통해 전달된 기부금은 외국학중합연구센터 건립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주간 일정표〉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자연대학대운영회의	서양학대 해오름식 -소운동장-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애국외대 투쟁 선포식 (노천극장 3시) 자연대 해오름식	동방어·정책·상경대 단학대회	동총련 학자 공동선대 투쟁 (서종대). ← → 경인총련 대의원대회	5·6공 원천 청산을 위한 전면 집회

신임교수 21명 최종 확정

외국인 교수 6명 포함

본교는 21명의 신임교수를 최종적으로 확정 임용했다. 각 교수의 명단과 약력은 다음과 같다.

△박정운(영어과) Vniv. of Califonia at Berkdeey, 언어학박사 △김시홍(이태리어과) 그레고리안대학, 사회학 박사 △이승용(프르투갈어과) 파리3대학, 언어학박사 △장인성(일본어과) 동경대학, 정치학 박사 △소병국(말레이·인도네이시아어과) Ohio Univ. 문학박사 △김용민(정치외교학과) Univ. of Chicago. 정치학 박사 △민충기(경제학과) Univ. of chicago. 경제학박사 △박찬구(철학 전공) Univ. Tubingen. 철학박사 △최대우(통계학전공) Rutgers Univ. 이학박사 △강준우(전자공학 전공) Michigan State Univ. 공학박사 △손기락(컴퓨터공학과) Univ. of California. 공학박사 △정일영(정보통신공학전공) Univ. of Messachusette. 공학박사 △백원장(산업공학과) Univ. of Houston. 공학박사 △이창수(통역대학원 한·영전공) Boston Univ. 응용언어학박사 예정. △Milhaus SHAN Marlianne(불어과) Montpellier Ⅲ Univ. 언어학 석사 △Nasr Addin Salih Saud Muhammad(아랍어과) Cairo Univ. 언어학 박사 △Somchal Sumnfe-ngngam(태국어과) Chulalongkorn Univ. 교육학 석사 △Akkara Buntip(태국어과) Chulalongkorn Univ. 교육학 석사 △Tran Van Tieng(베트남어과) HOCHIMING Univ. 언어학 석사 △Zdenko Lesic(유고어과) Sarajevo Univ. 유고문학 박사 △Asma BENYA GOUB(통역대학원) Univ. de Paris Sorbonne 실용외국어 석사

박정운 〈영어과〉 김시홍 〈이태리어과〉
이승용 〈프르투갈어과〉 장인성 〈일본어과〉 소병국 〈마·인어과〉 김용민 〈정치외교학과〉
민충기 〈경제학과〉 박찬구 〈철학전공〉 최대우 〈통계학 전공〉 강준우 〈전자공학 전공〉
손기락 〈컴퓨터 공학과〉 정일영 〈정보통신공학 전공〉 백원장 〈산업공학과〉 이창수 〈통역대학원 한·영 전공〉

대학단신

구내 전산망 구축 공사

용인캠퍼스 학내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2월 26일(화)부터 랜(LAN)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선로공사가 마무리되고 통신중계장비를 갖춰 구내 전산망이 개통되면 학내 각종 행시일정 및 정보교류·컴퓨터를 통한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이 공사는 늦어도 오는 1학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자연대 확대운위 오늘(18일) 열려

자연대 학생회는 오늘 18일(월) 각 학과 학년대표·집행부가 참석하는 단대 확대운영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는 자연대 학생회 1년 운영기본원칙과 사업을 논의한다는 취지이래 단대 학생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은 △1년 학생회 사업계획서보고 및 인정식 △교육재정확보투쟁계획 △학년 학생회운영의 원칙과 방도가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와 관련 정책위원장 류신호(미생물·4)군은 "1학년 학생회 출발점에서 모든 사안은 자연대 전체학생들과 공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사, 학술서적 기증

중국대사 장링옌 대사 일행이 지난 13일(수) 본교를 방문하여 중국 학술서적 296권을 기증했다.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기증식에서 장링옌 대사는 "외대 중국어과를 높이 평가하며 활발한 교육·문화교류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대사관과 본교는 2~3년전부터 여러차례를 교류가 있어 왔다.

96 군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1.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3학년(○○명)
2. 지원자격
   4년제-1학년(74. 1. 1~80. 1. 1 출생자)
   3년제-2학년(73. 1. 1~79. 1. 1 출생자)
   2년제-3학년(72. 1. 1~78. 1. 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6. 3. 18~4. 30(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신체검사)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대입수능시험 성적증명서 1부 · 복무연장 또는 장기복무 지원서 1부 · 전연세 사진(4×5cm) 3매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재정보증 관계 서류 1부

4.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1996. 8. 10
6. 특전
   •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시 '加'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금 지급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전화: 961-4411, 4412

97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R.O.T.C)

1.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 96년도 현재 대학 2학년 재학생
   • 73. 1.~1~79: 3. 1 출생자(18세~24세 이하)
   • 장교 임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6. 3. 18~4. 13(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체력검정·면접평가시)
• 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입학성적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1부 • 교교생활기록부 1부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연세 사진(4×5cm)1매	• 전연세 사진(4×5cm) 2매 ※ 개인도장,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볼펜 지참

4. 선발
   • 1차: 입학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적성·면접평가
   • 2차: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1996. 11. 18
6. 특전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전화: 961-4411, 4412

자아성장을 위한 심리 검사 및 개인상담

1. 심리검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검사,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해 드립니다.
   ※ 적성검사는 격주로 실시하며, 학보 및 게시판에 수시로 공고합니다. 그 외의 심리검사는 항상 실시합니다.
2. 개인상담
   보다 원만하고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거나, 혹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진로문제, 대인관계, 정서장애, 이성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담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 상담방법: 각자의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1회 50분씩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1주일에 1~2회씩 정기적으로 여러번 만나게 됩니다.
   ※ 상담자: 신경진(서울 상담부장, 상담심리전문가)
   강이영(용인 상담부장, 상담심리사)
   이경희, 김현주, 조미양(상담심리사)
   이혜승, 김미현, 이은아, 박성은(상담원)
3. 유학상담
   유학에 관한 각종 정보를 드립니다.
   ※ 상담자: 이홍탁(연구소 소장, 사회학 교수)

이용시간: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장 소: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996학년도 예산공고

학교회계 자금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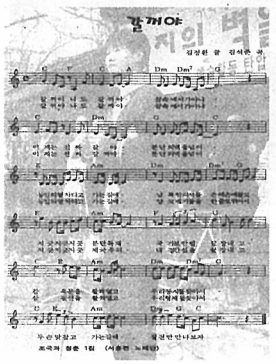
(1996. 3. 1-1997.2.28)

교비 및 기성회비 회계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Ⅰ.당기자금수입	(68,850,000)	Ⅰ.당기자금지출	(68,850,000)
1.납 입 금	(52,600,000)	1.인 건 비	(32,700,000)
(1)입 학 금	2,002,500	(1)교 원 인 건 비	21,800,000
(2)수 업 료	32,160,675	(2)직 원 인 건 비	10,900,000
(3)기 성 회 비	18,199,968	2.관 리 운 영 비	(4,735,000)
(4)단 기 수 강 료	236,857	(1)시 설 관 리 비	2,200,000
2.전입 및 기부수입	(9,050,000)	(2)일 반 관 리 비	1,800,000
(1)경 상 비 전 입 금	1,894,000	(3)운 영 비	735,000
(2)지 정 기 부 금	4,970,000	3.연 구 학 생 경 비	(11,440,000)
(3)연 구 기 부 금	880,000	(1)연 구 비	1,600,000
(4)시설·설비보조	300,000	(2)장 학 금	810,000
(5)도 서 관 보 조	400,000	(3)학 비 감 면	5,260,000
(6)자구노력적립	600,000	(4)실 험 실 습 비	550,000
(7)기 타 보 조 금	6,000	(5)학 생 지 원 비	1,550,000
3.교 육 부 대 수 입	(1,440,000)	(6)기 타 학 생 경 비	370,000
(1)입 학 원 서 대	60,000	(7)입 시 수 당	520,000
(2)수 험 료	1,240,000	(8)입 시 경 비	780,000
(3)증 명 료	115,000	4.교 육 외 비 용	(240,000)
(4)대여교복사용료	25,000	(1)지 급 이 자	240,000
4.교 육 외 수 입	(1,410,000)	5.투자와기타자산지출	(420,000)
(1)예 금 이 자	1,300,000	(1)장 학 기 금 적 립	60,000
(2)잡 수 입	110,000	(2)퇴 직 기 금 적 립	250,000
5.투자와기타자산수입	(4,350,000)	(3)기 타 기 금 적 립	90,000
(1)건 축 기 금 인 출	4,300,000	(4)전신전화보증금지출	20,000
(2)장 학 기 금 인 출	50,000	6.고정자산매입지출	(18,600,000)
		(1)기계기구매입비	3,000,000
		(2)비품및집기매입비	600,000
		(3)차량운반구매입비	100,000
		(4)도 서 구 입 비	900,000
		(5)건 설 가 계 정	14,000,000
		7.고 정 부 채 상 환	(715,000)
		(1)장기차입금상환	666,000
		(2)차 관 상 환	49,000
Ⅱ.자 금 수 입 총 계	(68,850,000)	Ⅱ.자 금 지 출 총 계	(68,85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재무처장

'갈꺼야, 분단의 벽을 넘어'



문제 됐던 꽃다지의 '갈꺼야' 전문

2월 8일(목)부터 종로의 탑골공원에서는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공연이 열리고 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마을, 천지인, 안치환 등 민족 음악인과 많은 민족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기한은 무기한? 꽃다지 대표인 원용호씨와 이은진씨가 석방되는 날까지 공연할 예정이라고 한다.

꽃다지는 자신들의 노래 가사 한 대목이 용공적이고 반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당했다. 하지만 노래가사는 그렇게 한 대목씩 잘라 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노래는 가사뿐만 아니라 악보에 의해서 많은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사만으로 그 의미를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를 분석할 때도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행가에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가사가 있다고 할 때 "정말 죽고 싶다"라는 대목만 뚝 따내어서 염세적 자살을 충동하는 가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갈꺼야, 진짜 갈꺼야,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열차 타고 남·북합의서를 손에 들고 통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통일하고 싶은 마음은 애타는데, 우리 민족 우리 협제자매를 만나러 북으로 가고 싶다는데, 국가보안법은 그 마음을 싹둑 잘라 버렸으니 통일로 향하는 길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누군들 아속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 나라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나라의 국시를 통일이라 명하고 있는데,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통일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런 한민족의 바램을 작게나마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법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와 다를 게 무엇이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만나고 싶다는 얘기며, 통일하자는 말 아닌가. 한달 전 우리들에게 '노동가요 공식음반'으로 더욱 잘 알려진 '꽃다지'가 그동안 음반으로 나온 노래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민중가요' 즉 대중가요를 악보로 만들어 출판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돼 구속됐다는 소식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갈꺼야"라는 노래를 두고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투쟁 등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래를 불러 보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깊숙이 묻혀 있다.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남북한의 공존 상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통일 논의에 대해 언제든지 족쇄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라는 의문에 다시 한번 문민정부라는 이름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꽃다지를 살리기 위한 이 거리 공연은 단순히 몇몇 예술인들만의 공연이어서는 안된다. 진정 우리 사회에 건강한 예술 활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함께 무기한 거리 공연에 주인이 되어 참가하자. 함께 투쟁의 거리에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연히 종로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탑골공원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여러 예술인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정 태 영
〈사범 · 한교 2〉

□ 서평 - '한 독립군 병사의 항일 전투'

이름 모를 애국지사들의 숨결 담아

지난 1월 29일, 일본의 독도 망언을 계기로 어느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격앙돼 있다. 또한 독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연기념물인 괭이 갈매기와 희귀(?) 양생화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타 안전 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울릉도 주민들의 어업권 확보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 과연 몇 %가 될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번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얼마전 읽은 바 있는 '한 독립군 병사의 항일 전투'라는 책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다.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일 감정이 단지 상황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붙었다 꺼지고 마는 일회적인 속성을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고자 한다.

이 책은 만주 · 노령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 독립 운동사를 연구하는 중에 독립 운동가 개인에 대한 사례 연구로써 저자가 북로군정서 독립군 병사 이우석을 통해 하부층, 최일선의 전투 요원으로 지금까지의 항일 민족연구사가 최고 지도층이나 중간 지도층의 시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항일민족독립운동사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 있다.

1896년 원주에서 태어난 이우석의 일대기를 통해

종래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지도자 중심에서, 시각을 달리하여 독립운동이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층층스럽게 투쟁을 전개한 수많은 독립군 병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이우석의 항일민족운동이 갖는 특징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하층민인 이우석이 민족의식과 항일구국운동에 대한 신념이 싹트고 있었다는 점과 특히 친일 행각을 일삼았던 아버지를 개탄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무릅쓰고 오직 항일민족독립운동 전선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수행한 점, 셋째 항일 독립운동의 방향이 수많은 계열과 계보, 분파, 크게 북벽적 민족주의, 공화적 민족주의(민주주의), 사회공산주의 계열로 나누어진 와중에서도 시종일관 공화적 민족주의를 고수한 점이다. 이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모든 지방색, 당파, 주의, 사상, 인맥 등을 초월하여 대동단결하지 못한 점을 생각할 때 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동지들과 합심단결하여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접해 온 청산리전투, 자유시참변 등을 최일선에서 경험한 이우석 병사를 통해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접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어린 나이에 구국의 뜻을 품고 모든 역경을 딛고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이우석 병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번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다. 나라 잃은 설움을 시시때때로 떠올리며 오로지 조국 광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였던 이우석 병사를 책으로나마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서 두 만
〈동양 · 아랍어 4〉

사진수필

진정 청산해야할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스승을
내 동지를
양심수로 만들고
기 십년을 독방에 가두고 있는
국가보안법
바로 세워야할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한승주 기자

작은 외대 이야기

by. 해갈

95 '박재용

남북이 함께라면

96학번 수습모집

역사적인 순간, 그날을 위해 수습기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외/대/학/보 기자, 역사의 현장에 서 있을 그대, 참소리 밝은 소리 **F/B/S**를 타고 빠르고 알차게, 그리고 한 권의 **외/대/교/지**에 감격의 그 순간을 모든 이들에게, 해외라면 **T/h/e A/r/g/u/s**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 96학번이라면 2002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문제없겠죠?

외대 언론사 학보 · 교지 · The Argus · FBS에서는 남과 북이 공동주최하는 월드컵을 함께 준비할 **96학번 새내기를 수습으로 모집합니다.**

참일꾼 참조직 참사랑을 실천하는 제8대 언론협의회

마감 - 학보: 3월 20일(수), 교지: 3월 22일(금), Argus: 3월 21일(목) 학생회관 2층, FBS: 이문-(마감), 왕산 - 3월 19일(화) 어문관 2층